

# 영화부산

FILM  
BUSAN  
2023. 가을호  
VOL.44

지역화폐 동백전!  
지역경제 동반자!

지역화폐가 만드는 부산경제 나비효과  
쓰면 쓸수록 고객에게 돌아오는 캐시백효과  
받으면 받을수록 가맹점에겐 수수료 절감효과  
55년 지역은행, 부산은행이 부산시와 함께  
더 든든한 지역경제의 날개를 만들겠습니다

부산은행이 지역화폐 동백전과  
함께합니다

부산은행  
Check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참조하시거나 동백전 고객센터(1577-1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2-471 (심의일자 2022.04.21) | 유효기간 2022.04.21 ~ 2023.03.31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

부산영상위원회 소식지

영화부산 FILM BUSAN

2023 가을호 VOL.44

이슈

빛나지 않더라도, 작은 희망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

부산 촬영해 보고서

어떤 곳이든 구현할 수 있는 곳,  
부산으로 <무방>

기획

아시아 영화에 날개를 달다,  
부산아시아영화학교



부산영상위원회 소식지  
[www.filmbusan.kr](http://www.filmbusan.kr)



영화는 현실을 반영한다. 스크린 속 인물 또는 사물의 이야기에 우리는 웃고 울고, 환호하고 가슴을 친다. 어떻게든 우리 삶과 연결되는 지점을 찾는다. 극의 재료가 전혀 실증되지 않았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허무맹랑한 사후 세계에서 시체가 살아 날뛰든, 먼 미래에서 끝자리까지 딱 맞춰 수명의 일부를 사고팔든. 모든 상황은 우리 상상력과 의식이 만들어낸다. 우리는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설마' 하면서도 최소한 공포를 느끼거나 기대를 품는다.

영화는 이처럼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전혀 다른 문화를 만든다. 문화의 한 부분이 돼 서로 잊고 상호 작용한다. 영화는 문화 다양성을 표현하는 가장 친숙하면서도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하다. 천 가지, 만 가지 주제와 이야기가 영화를 타고 국적 언어 정치 사회 문화의 장벽을 넘는다. 이해와 가치를 공유한다. 영화가 가지는 공감과 연결의 힘이다.

영화로 지역의 자원과 문화, 사람을 잇는 활동이 가까이에서 펼쳐지고 있다.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 부산과 영화, 영화와 문화를 긴밀하게 연결한다는 뜻일까. 각각 낱말을 이어 붙인 생소한 조합을 보고 처음 했던 생각이다. 그러나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부산', '영화', '문화', '네트워크'라는 네 단어에 정체성이 모두 담겼다. 이 단체 구성원은 영화와 사람을 연결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부산독립영화협회를 중심으로 모였다. 기획, 창작, 전시, 상영을 비롯해 멘토링과 워크숍 등으로 지역에서 영화와 사람을 만나게 한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문화 다양성과 가치를 나눈다. 그리고 서로를 채운다. 이번 가을호 이슈에서는 3년 차를 맞은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 활동과 고민을 부산독립영화협회 오민욱 대표의 글로 만났다. 부산독립영화협회는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의 대표 단체 역할을 한다.

안타까운 소식도 들린다. 지난 9월 5일 발표된 영화진흥위원회의 2024년 예산안에서 지역 영화 관련 예산이 전액 깎였다.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활동비를 보전해온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의 내년 활동이 불투명해 보인다. 모쪼록 그들이 쌓아가는 경험이 지속 가능하기를 응원한다. 공감과 연결이라는 영화의 힘이 지역에서 계속 빛나기를 기대한다.

다가오는 10월에는 영화문화의 강력한 플랫폼인 영화제가 열린다. 4일 개막하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69개국 209편의 공식 초청작과 커뮤니티비프 상영작 60편까지 총 269편이 스크린에 오른다. 전 세계 여러 지역 영화가 제시하는 다채로운 현실과 미래를 탐nik하고, 영화제라는 축제를 만끽하면서 모두가 공감하고 연결되는 열흘이 되길 바란다.

편집책임 배주형

## FILM in BUSAN

### 부산 촬영해 보고서 배우부산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 제작현장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 배우 이정하

### 지금, 여기, 로케이션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 & 양덕운 가옥

## ISSUE BUSAN

### 이슈 기획 필드 인터뷰

빛나지 않더라도, 작은 희망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  
아시아 영화에 날개를 달다, 부산아시아영화학교  
영상물등급위원회 채윤희 위원장

## 칼럼

### 포커스온OTT 영화관에 간 심리학

길 잃은 게임: <테트리스>  
한 잔 더? - 나 아직 살아 있어!: <어나더 라운드>

## 필름리뷰

<비밀의 언덕> <지옥만세> <클로즈>

## 임수연 기자의 산업 읽기

각자도생(各自圖生) OTT 새로운 돌파구를 찾다

## 인포그래픽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나는 부산 촬영 영화

## BFC뉴스

부산영상위원회 주요 소식

6

10

14

26

32

38

42

44

47

50

52

54

# FILM in BUSAN

〈무빙〉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고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주인공들처럼  
〈무빙〉은 탄탄한 캐릭터 서사와 전개라는 고유의 매력으로  
콘텐츠의 힘을 지켰다.

하늘을 나는 주인공부터 겨울날의 눈까지 만들어 낸  
부산 촬영기는 살아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현장의 진정한 '초능력자'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사람을 무장해제 시키는 티 없는 순수함으로  
〈무빙〉의 시작을 여는 '봉석'이는  
그 매력을 꼭 빼닮은 풋풋한 매력의 배우 '이정하'로 완성됐다.

06  
부산 촬영해 보고서

어떤 곳이든 구현할 수 있는 곳,  
부산으로 <무빙>

10  
배우부산

무해한 초능력 소년,  
<무빙> 이정하

# 어떤 곳이든 구현할 수 있는 곳, 부산으로 <무방>

##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무방> 제작현장

인터뷰이 <무방> 김경해 제작부장

인터뷰 정리 <영화부산> 편집팀

사진출처 월트디즈니 컴퓨터 코리아

### SUMMARY

2021년 부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작

감독 박인제, 박윤서

출연 류승룡, 한효주, 조인성, 차태현, 류승범, 김성균, 김희원, 문성근, 이정하, 고윤정, 김도훈 외

장르 액션, 스릴러, 히어로, 느와르, 초능력, 비밀  
채널 디즈니+

공개 2023년 8월 9일

부작 20부작

누적 촬영일 수 총 35일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갑만1동 주택가, 학리마을(일광),  
구포 풍진그린밸리, 부산형 연안여객터미널, 시영아파트(통래동),  
부산외국어대학교 남산동캠퍼스, 문현4동 주택가, 양진나방(대평동),  
태종대유람선터미널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무방>(2023)은 누적 조회수 2억 뷰를 돌파한 강풀의 인기 웹툰을 실사화한 작품이다. 원작자 강풀 작가가 전체 시나리오를 집필했으며, 여기에 화려한 배우들이 합류해 원작의 재미를 제대로 살렸다. 각각의 캐릭터들이 가진 서사를 강조하며 차별화된 '한국형 히어로물'을 탄생시킨 <무방>은 하늘을 날고, 엄청난 고력을 발산하는 초능력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고 납득시키는 힘을 가졌다. 여러 장르와 다양한 캐릭터들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무방> 속 부산은 부산만의 살아 있는 로케이션 매력으로 작품에 설득력과 현실성을 불어넣었다.

## 우린 괴물도, 영웅도 될 수 있어

<무빙>은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아픈 비밀을 감춘 채 과거를 살아온 부모들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 액션 시리즈다. 주인공들이 초능력을 사용하다 보니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부터 인물들의 초능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공들였다. 해당 장면들은 무술과 특수효과로 최대한의 실사 촬영을 한 후 마지막 CG 작업을 거쳐 최종 결과물이 탄생하는 식이었다. 그래서 주요 장면은 CG팀에서 프리비주얼 작업을 통해 사전 회의와 컨펌을 진행했고, 해당 솔루션대로 촬영했다. 영화 한 편의 경우 주요한 2~3장면을 프리비주얼로 준비하는 반면(장르에 따라 따르겠지만) 20부작인 <무빙>의 경우 훨씬 많은 장면을 프리비주얼로 준비해야 했다.

11화의 주요 시퀀스 중 하나인 '주원'(류승룡 분)이 골목에서부터 봉고차에 쫓기고 계단에서 차와 굴러 떨어지는 컷, 오토바이 사고 후 봉고차에 뛰어들어 축대에서 떨어지는 장면의 경우 프리비주얼을 여러 버전으로 수정에 수정에 거듭하며 회의를 한 과정들이 있었다. 방송으로 볼 때는 몇 분 안 되지만 이 장면을 위해 부산의 감만동 골목 일대와 기장에서 10회 차를 넘는 촬영이 이루어졌다. 짧은 길이의 여러 컷을 쪼개고 이어 붙었으며, 여러 로케이션 촬영이 합쳐져 탄생한 장면이다.

## 활용도 높은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무빙>은 부산에서 총 35회 차의 촬영을 진행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촬영이 이루어진 곳은 다름 아닌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다. 부산이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를 가진 것은 영화·영상 도시로서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항상 예약이 치열

한 곳이지만 <무빙>은 좋은 타이밍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준비 기간 동안 정말 한시름 놓았다.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는 <무빙>에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천장에 쿠션 처리를 해둔 봉석(이정하 분)의 방, 남산 돈까스 집 2층 내/외부, 주원과 지희(곽선영 분)가 살던 공무원 임대 아파트 내부, 재만(김성균 분)의 아파트 내부와 복도 등의 장면이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에서 세트장을 지어 촬영한 장면이다. 이외에도 두식(조인성 분)과 봉석의 부양하는 와이어 액션 장면은 스튜디오 마당에서 촬영했다.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는 최근 많이 생겨난 창고형 세트장에 비해 방음도 아주 확실하고 의상 및 분장실, 스태프 방 등의 부대 공간도 많이 갖추고 있다. 세트장 위치 역시 해운대 숙소 이용 시 출퇴근이 용이하고, 주변 편의시설과도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대부분의 세트를 지을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스튜디오 사이즈(B동)는 물론 대여비도 합리적이니 촬영팀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부산 로케이션의 매력

주원과 지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10화와 11화 에피소드는 대부분 부산에서 촬영됐다. 사실 시나리오상 주원과 지희의 공간은 인천이 주요 배경이다. 그러나 실제 인천에서는 그 시절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 자연스레 부산으로 끌려왔다. 부산 로케이션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정감 있는 정취가 묻어나는 공간들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시대 배경이 현재가 아니거나, 바다가 나온다, 누아로 느낌의 장소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엔 부산을 가장 최우선 후보지로 두게 된다.



10화 초반부 주원이 자해공갈을 하는 골목들은 부산의 감만동 골목 일대에서 촬영됐다. 길치인 주원이 플러스 모텔을 찾다 길을 잃는 곳도 감만동 일대이다. 지희가 일하는 엄지다방은 영도에 소재하고 있는 다방이었다. 이외에도 주원과 나주(김국희 분), 봉평(최덕문 분), 진천(백현진 분)이 임무 수행 후 입국하는 곳은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 국정원 로비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남산동 캠퍼스에서 촬영했다. 주원과 희수가 과거에 살았던 집 내부 촬영도 부산에서 이루어졌다.

그중 잊을 수 없는 촬영은 주원과 동료들이 개복치 회를 먹던 장면이다. 태종대의 유립선 승선 장소를 횟집처럼 세팅해 촬영했는데, 촬영 당일 아침부터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세팅해 놓은 소품들이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곳이 평소에 절대 그렇게 파도가 치는 곳이 아닌데 말이다. 이에 제작팀, 미술팀, 소품팀이 비를 끌딱 맞으며 떠내려가는 소품을 붙잡은 기억이 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촬영 시간이 다가오니 비바람이 잦아들더니 이내 바다가 잠잠해졌다. 촬영시간에 도착한 스태프들은 홀딱 젖은 우리를 보고 어리둥절해할 정도였다. 다행히 촬영은 무사히 진행됐고, 완성된 장면을 보니 화면 자체가 예쁘게 잘 나와 만족스러웠다.

## 소금으로 만들어낸 겨울 배경!

### 잊을 수 없는 추억, 잊을 수 없는 사람들

부산에서 촬영한 장면들의 배경이 겨울이라 촬영 때마다 바닥에 눈처럼 보이도록 소금을 깔았던 기억도 잊을 수 없다. 매번 촬영하기 전에 소금을 뿌리고 촬영이 끝나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 짧은 구간 골목의 소금을 치우는 것도 두 세 시간은 족히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밤에 촬영한 장면들이 많아 촬영이 끝나고 난 후 아침이면 제작팀들이 거의 즐면서 소금을 치웠다. 사실 골목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혼도 많이 났다. 남의 집 앞에 소금을 뿌려대니 혼날 만도 하지 않나. 그래도 항상 깨끗하게 치우니 이후에 또 촬영을 하려 갔을 땐 오히려 어르신들이 안쓰러워해 주셨던 기억이 난다. 이 자리를 빌려 기꺼이 집앞을 내어주신 시민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부산 촬영은 제작팀원 중 부산 로케이션 담당자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다. 촬영 분량이 많았던 만큼 로케이션을 섭외하고, 관계자분들과 시민분들을 설득해야 했기 때문이다. 고생한 담당



자와 그 담당자에게 설득당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또 언제나 적극적으로 애써주신 부산영상위원회 로케이션 매니저님도 잊을 수 없다. 제작팀의 입장에서 문의를 드렸을 때 안 된다는 말보다 우선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주시니 우리 촬영을 진심으로 도와주시려는 그 마음이 전달됐다. 전국으로 촬영하러 다녀봐도 부산은 정말 촬영에 협조적이고 열려있는 도시라는 것이 느껴진다. 지자체에서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려 하고 촬영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유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으니 감독님들이 그렇게 부산을 좋아하시나 보다.

마지막으로 <무빙>을 사랑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 혹시나 원작의 감동을 간직하고 싶어서 혹은 드라마의 톤이 다소 어두울 것 같아서, 별로 궁금한 마음이 들지 않아서 아직 <무빙>을 시도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한번 재생 버튼을 눌러보시라 권한다. 아마 한번 시작하면 다음 편 재생을 멈추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다. 남은 올 한 해 묵직한 감동으로 무빙하시라! 영화부산



귀여운 미소, 해사한 얼굴.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2023)에서 초능력 소년 주인공 봉석 역을 맡은 이정하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일이라고 전혀 없어 보이는 선한 고등학생의 얼굴로 나타나 시청자의 마음을 보드랍게 사로잡았다.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초능력을 비밀로 숨기고 살아온 그는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따뜻한 친구 희수(고윤정 분)를 만나 진실한 지지를 받고, 비로소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는 용기를 내며 한 뼘 성장한다.

## 무해한 초능력 소년, <무빙> 이정하

###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 배우 이정하

인터뷰·글 박꽃 이투데이 문화전문기자  
사진출처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정하는 “봉석은 따뜻하고, 순수하고, 다정한 사람이면서도 걸보기와는 달리 내면이 강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작품 출연 전부터 이미 강풀 작가의 원작 웹툰을 모조리 읽고 즐겼다는 그는 “가장 좋아한 작품이 <무빙>이었고 제일 좋아한 캐릭터가 봉석이였다”고 했다. 오디션을 치르는 동안 박인제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에게 작품과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한다.

#### 오디션 전부터 체중 늘려 촬영 때 100kg 육박 공중에 봉 뜨는 와이어 액션까지 도전 연속

이정하는 출연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오디션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미 체중을 불리기 시작했다. “어차피 누군가가 봉석을 연기하게 될 거라면 내가 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배역을 준비할 만큼 애착을 지닌 상태였다. “노력의 흔적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그는 “봉석처럼 통통하게 보이고 싶어서 조금씩 몸무게를 늘리기 시작했다”고 당시를 돌이켰다. 정작 오디션에 합격한 뒤에는 “한동안 실감 나지 않았다”고 한다. “오디션에 워낙 많이 떨어져 봤기 때문”이기도 할 테지만, 2017년 웹드라마로 데뷔해 방송국 드라마 조연으로 활동해 온 신예 이정하에게 500억 원 넘는 제작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대작 드라마 <무빙> 출연은 전에 겪어본 적 없는 기회를 의미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촬영 초반에는 유명 배우이자 선배인 한효주와 조인성을 부모 역으로 만나게 되는 상황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고 한다. “선배님 대신 엄마, 아빠로 부르라”는 선배들의 조언을 따르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종종 “과연 내가 이 역할을 해도 될까 싶은 마음이 들어 의기소침한 적도 있다”고 고백했다.



귀여운 미소, 해사한 얼굴.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2023)에서 초능력 소년 주인공 봉석 역을 맡은 이정하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일이라고 전혀 없어 보이는 선한 고등학생의 얼굴로 나타나 시청자의 마음을 보드랍게 사로잡았다.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초능력을 비밀로 숨기고 살아온 그는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따뜻한 친구 희수(고윤정 분)를 만나 진실한 지지를 받고, 비로소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는 용기를 내며 한 뼘 성장한다.

## 무해한 초능력 소년, <무빙> 이정하

###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 배우 이정하

인터뷰·글 박꽃 이투데이 문화전문기자  
사진출처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정하는 “봉석은 따뜻하고, 순수하고, 다정한 사람이면서도 걸보기와는 달리 내면이 강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작품 출연 전부터 이미 강풀 작가의 원작 웹툰을 모조리 읽고 즐겼다는 그는 “가장 좋아한 작품이 <무빙>이었고 제일 좋아한 캐릭터가 봉석이였다”고 했다. 오디션을 치르는 동안 박인제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에게 작품과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한다.

#### 오디션 전부터 체중 늘려 촬영 때 100kg 육박 공중에 봉 뜨는 와이어 액션까지 도전 연속

이정하는 출연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오디션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미 체중을 불리기 시작했다. “어차피 누군가가 봉석을 연기하게 될 거라면 내가 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배역을 준비할 만큼 애착을 지닌 상태였다. “노력의 흔적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그는 “봉석처럼 통통하게 보이고 싶어서 조금씩 몸무게를 늘리기 시작했다”고 당시를 돌이켰다. 정작 오디션에 합격한 뒤에는 “한동안 실감 나지 않았다”고 한다. “오디션에 워낙 많이 떨어져 봤기 때문”이기도 할 테지만, 2017년 웹드라마로 데뷔해 방송국 드라마 조연으로 활동해 온 신예 이정하에게 500억 원 넘는 제작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대작 드라마 <무빙> 출연은 전에 겪어본 적 없는 기회를 의미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촬영 초반에는 유명 배우이자 선배인 한효주와 조인성을 부모 역으로 만나게 되는 상황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고 한다. “선배님 대신 엄마, 아빠로 부르라”는 선배들의 조언을 따르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종종 “과연 내가 이 역할을 해도 될까 싶은 마음이 들어 의기소침한 적도 있다”고 고백했다.

체중은 30kg에 가깝게 증량했다. 몸집을 불리는 특수분장 대신 '먹어서 찌우기'를 선택했다는 그는 "팔도비빔면, 불닭볶음면, 신라면, 진라면을 골고루 먹어가며 늘린 것"이라고 설명하며 웃었다. 노력 끝에 얻은 불룩한 배와 등실한 그의 체형은 극 중 인물의 순박한 맛을 한층 강화한다.

처음 경험하는 와이어 액션도 큰 도전으로 손꼽았다. "땅에서 대사를 하는 것만큼 하늘에서 말하는 분량도 많았다"는 그는 "와이어를 (바지처럼) 입어서 착용하거나, 허리에 둘러매는 등 (하늘을 나는 모양새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촬영했다"고 복기했다. 공중으로 뿜 또는 장면을 처음 찍던 날은 여전히 잊지 못한다. "(희수에게 초능력을 들기는) 학교 계단 신이었는데, 긴장감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될 힘을 계속 쓰느라 몸이 무척 힘들었다"고 했다. 천장까지 치솟은 몸에 당황하며 허우적대는 봉석과 그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희수 모습이 담긴 <무빙> 3화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촬영됐다.

작품이 공개된 최근 주변에서는 "네가 봉석이라는 걸 믿지 못하겠다"는 말도 종종 듣는다. 촬영을 마친 지 1년가량이 흐르면서 체중을 눈에 띄게 감량한 까닭이다. 이정하는 "친누나 친구가 <무빙>을 재미있게 봤다는데 우리 집에 놀라 와서 나를 보더니 안 믿더라"면서 웃었다.

"왠지 모르게 좀 얹을하고 서운했다"는 우스갯소리를 건네던 그는 이내 진지하게 "이 작품으로 큰 성취감을 경험했다는 게 정말 좋다"는 말도 꺼냈다. "앞으로 무언가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무빙> 때 해냈던 도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선생님 고민하다 배우로 진로 굳혀 사극영화 즐기고 로맨스 도전하고파

어릴 때부터 드라마를 많이 봤다는 이정하는 고3 때 배우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드라마에서 느낀 감동 덕분에 일상생활에서도 힘이 난 적이 많았다"면서 "나라면 이렇게 표현할 텐데.." 같은 생각을 자주 했고, 그 끝에 10대의 마지막 시절 배우 생활에 도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엔 선생님도 꿈꿨다. 한국사 수업을 무척 좋아했다는 그는 "사극 영화를 즐겨 봤다"면서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2005)와 <평양성>(2011), 조인성 주연의 <안시성>(2018), 류승룡 주연의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등을 망설임 없이 좋아하는 작품으로 손꼽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내용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배우가 됐으니 앞으로는 사극에서 역사적인 역할을 맡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심한 듯 성격 있는' 캐릭터의 매력을 표현할 기회도 엿보고 있다고 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7>(2012)의 서인국, <응답하라 1988>(2015)의 류준열 그리고 <무빙>의 동료 배우 김도훈이 맡은 강훈 역을 예로 든 그는 "<무빙> 속 봉석과는 반대되는 역할에 도전하고 싶다"고 했다. 표현하고 싶은 얼굴이 무궁무진한 듯, 그는 "일상생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절절한 로맨스 작품에도 출연하고 싶다"는 말 역시 빼놓지 않았다. "평소 가장 좋아하는 로맨스물은 영화 <아바웃 타임>(2013), 몇 번이고 돌려볼 정도로 결말의 여운이 오래 남은 작품은 <라라랜드>(2016)다"라고 밝혔다.



**"이 작품으로 큰 성취감을 경험했다는 게 정말 좋다. 앞으로 무언가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무빙> 때 해냈던 도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봉석 역은 현재 시점에서 전개되는 7화까지 출연했고, 부모님 세대(류승룡, 한효주, 조인성)에 읽힌 과거 시점의 사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몇 화에 다시 출연하는지, 최종 분량은 어디까지인지, 아버지 역인 조인성과는 만남이 성사되는지 등 여러 궁금증에 그는 "비밀"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희수를 만난 뒤 자기 마음 솔직하게 표현하게 된 봉석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한다"면서 "자기 능력을 숨기지 않게 되는 만큼 액션 신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가족애를 비중 있게 다루는 작품 특성상 자식과 부모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 중점을 두고 이후 분량을 봄다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영화부록

\* 편집자주  
해당 인터뷰는 <무빙>의 모든 회차가 공개되기 전 진행되었음을 밝혀둡니다.

## 박꽃

2016년 무비스트에서 영화 취재를 시작했고 2023년 현재 이투데이 문화전문기자로 일하고 있다.

# 핫-로케이션

*Hot location*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  
부산 중구 충장대로 24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외형을 닮은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은 1978년 부산국제여객터미널로 건립된 곳이다. 2015년 부산항 북항에 새 국제여객터미널이 건립된 후 해당 건물은 연안여객터미널로 용도를 변경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됐다. 현재는 연안여객터미널이 바로 옆 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해 이전하면서 해당 건물은 터미널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 기존의 매표소 및 내부 대합실, 입국 심사장 등 다른 곳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어, 작품 속 공항이나 터미널 장면 등이 필요할 때면 촬영팀이 앞다투어 찾는 부산의 인기 로케이션이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개봉한 영화 <비공식작전>(2023),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2023), tvN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2022) 등 많은 작품 속에서 다양하게 연출된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볼 수 있다. 오랜 역사와 추억을 간직한 공간이어서인지 특히 시대물 촬영이 유독 많이 이뤄진다.

#북항 #여객터미널 #공항\_터미널\_연출로\_강추  
#복고\_컨셉으로\_인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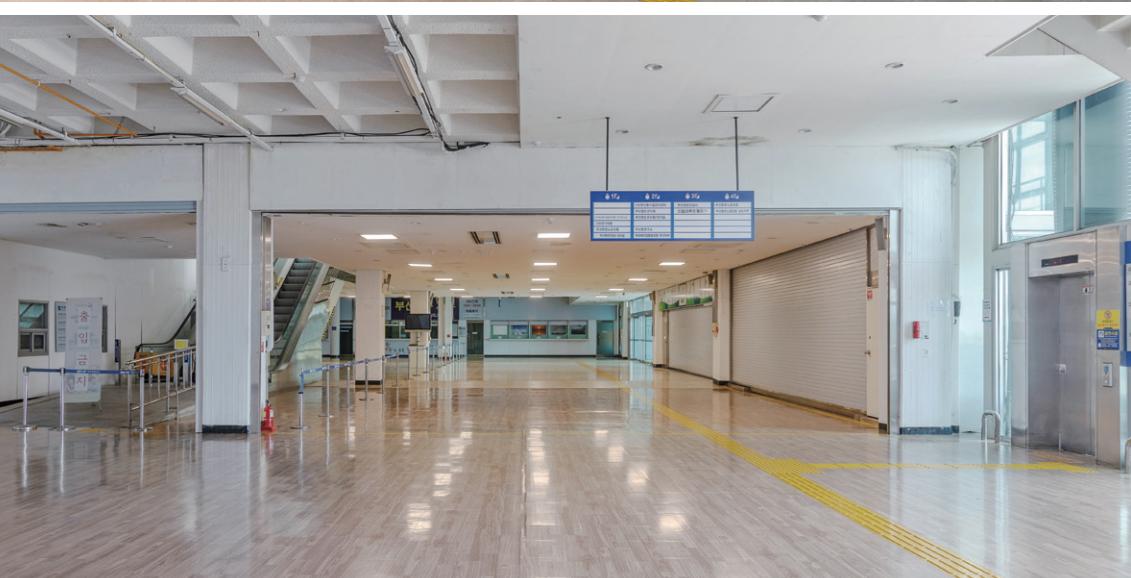
로케이션 매니저's Tip

승객이 찾지 않는 이곳은 실제 공항이나 터미널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촬영 세팅이 가능하다. 동시에 공간의 현실감은 살아있다는 것이 인기 요인이다. 건물 뒤편으로는 영도부둣가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니 이 바다 풍경도 놓치지 않고 담아가길 바란다.





17



FILM BUSAN

19

# 뉴-로케이션

*New location*

[양덕운 가옥]

부산 강서구 공항로 1309번길 9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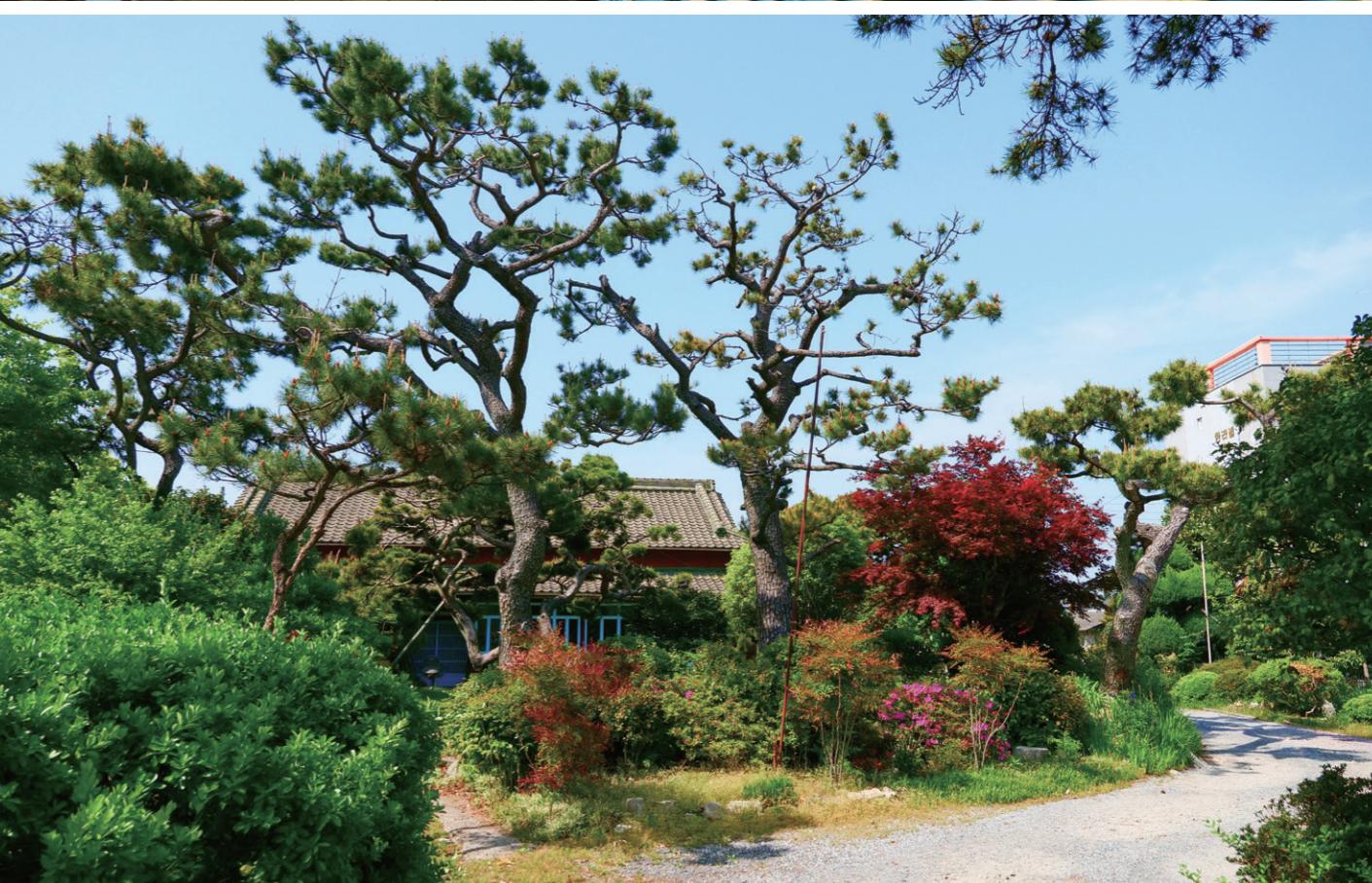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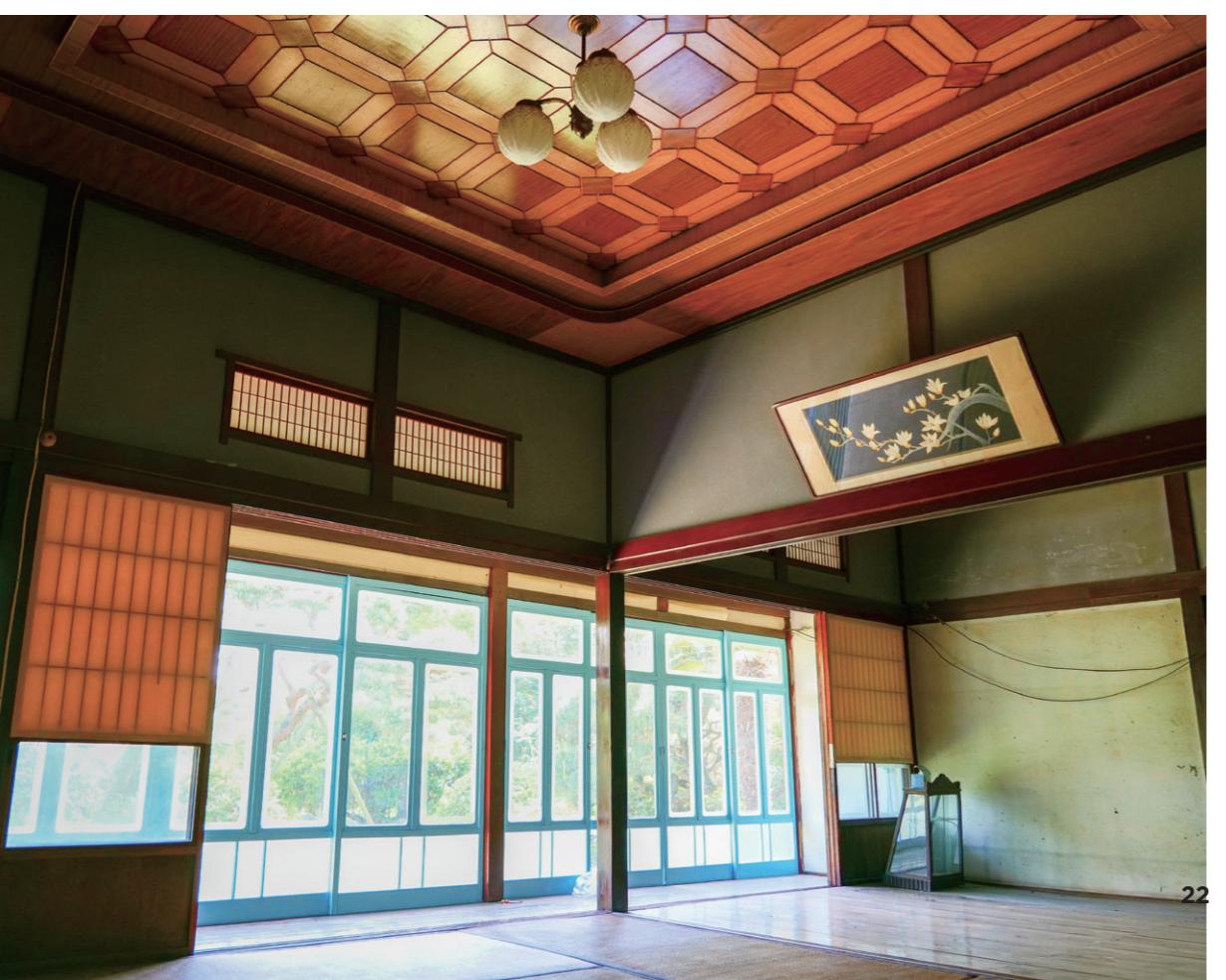
강서구 대저동 일대는 1900년대 초 당시 일본 자작농들의 배 농사가 한창이었다. 일제가 배 농사를 위해 일본 자국민들을 대저에 정착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저동 일대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적산가옥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양덕운 가옥 또한 1930년 일본인 농민이 지은 목조 건물이다. 가옥에 들어서면 잘 가꿔진 정원이 먼저 맞이한다. 특히 수령이 오래된 근사한 소나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정원 사이의 작은 오솔길을 따라 들어가면 지붕 위에 지붕을 얹은 일본식 중층 지붕과 창호 등 한눈에 봐도 원형이 잘 보존된 가옥이 보인다. 2012년 부산시 근대건축물로 지정된 이곳은 건물 외형뿐 아니라 실내 보존도 상당히 잘 되어있다. 큰 미술 세팅 없이도 시대를 촬영이 충분히 가능해 보일 정도니 조금만 디테일이 가해진다면 금세 근사한 화면이 연출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곳이다. ■■■■■

#적산가옥 #고급주택  
#정갈\_고풍스러운\_정원 #건물\_보존도\_최상

#### 로케이션 매니저's Tip

주변이 조용한 동네에 100년 넘은 건물이 있으니 이 곳에 들어서면 마치 시간여행을 떠나 온 듯 판타지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는 공항과 도심과도 가까우니 촬영 시 교통과 이동이 편리하다는 최고의 이점을 가졌다.





# ISSUE

# BUSAN

낮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별이 빛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부산, 영화, 사람을 잇는 ‘반짝이는’ 희망인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는 수많은 도전과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과 영화의 가치를 잊고 있다.

아시아 최초 국제 영화비즈니스 아카데미인  
부산아시아영화학교(AFiS)는 그간의 교육성과가 빛을 발하며  
부산을 ‘아시아 영화의 허브’로 성큼 나아가게 해주었다.

보이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

26  
이슈

32  
기획

38  
필드 인터뷰

빛나지 않더라도, 작은 희망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

아시아 영화에 날개를 달다,  
부산아시아영화학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채윤희

# BUSAN CINEMA

## 빛나지 않더라도, 작은 희망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에서 영화는 어떻게 향유되고 있을까.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영화를 사랑하고 있을까.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여기 그 답을 찾기 위해, 사람과 영화의 가치를 잊기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역 영화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부산의 영화 단체, 창작자, 활동가를 모으기 위해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작은 점을 그려나가는 사람들. 그 시작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의 대표단체 부산독립영화협회 오민욱 대표로부터 들어봤다. 기억을 거슬러 풀어주는 이야기 속 언젠가 오늘의 작은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그럼에도 해보는 지속의 가치가 보인다.

## CULTURE NETWORK



##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 그 시작

몇 해 전,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 날이다. 부산에서 영화와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연락을 받았다. ‘지역’, ‘영화’, ‘문화’, ‘네트워크’와 관련해 새로운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지역영화문화네트워크’라고 결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적은 이유는 당시 전해 들었던 저 문구가 익숙하기도 하고 순간 생경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나는 부산을 기반으로 영화 작업과 그와 관련한 부수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수이긴 했지만, 함께 작업하며 시간을 보내는 오랜 동료들도 있었다. 그 즈음해서 부산독립영화협회 대표를 맡게 됐다.

지역 영화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에 함께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기에 그런 당연함을 떠올리며 부산의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기획을 준비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던 익숙함으로 기억되는 분들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교류가 없었던 분들도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기획 회의 자리에서 처음 가졌던 마음은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 나누는 이야기가 다양하지만 그런 다양함을 뛰어줄 일목요연한 무언가는 떠오르지 않는다는 종류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부산의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해 시작한 그날 회의를 생각하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회의가 열렸던 부산 원도심 40개단 인근의 작은 골목에 주차해 둔 차량이 견인되어 부산하게 표정이 바뀌던 몇몇 사람의 얼굴이다. 오래된 기억이기에 희미하기도 하고 싱겁기도 한 당시의 에피소드는 이 기획의 구체적



2023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 운영위원회 2차 회의 현장

목표를 향한 생각과 말에 의해 금방 어디론가 견인되어 버렸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를 이끌 몇 개의 키워드가 그 자리를 채워가게 된다.

###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

사실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의 첫해와 두 번째 해 기획과 운영을 떠올려 보면 세부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회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다. 다양함의 실천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것들을 뛰어줄 일목요연함에 대한 물음표를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했다.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의 물음표는 누적되는 과제를 남기고 세 번째 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는 2023년 세 번째 해를 맞으며 다양함과 네트워킹, 두 가치를 입체적으로 꾸려갈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다. 지속해서 대표단체 역할을 해오고 있는 부산독립영화협회를 중심으로, 복합문화공간 ‘무사이’와 ‘공간 나리’, 영화배급 협동조합 ‘씨네소파’, 영화제작사 ‘깐따빠이’, ‘오지필름’, ‘부산평화영화제’, 그리고 3년째 함께 해오고 있는 영화문화협동조합 ‘씨네포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외에도 다양함을 더해줄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했지만 아쉽게도 더 넓고 깊은 결합의 시기는 잠시 뒤로 미루어야 했다. 이후를 기약해야 했지만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들의 참여로 채워지는 기획과 운영의 방향성을 갖고 출발했기에 세부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언제든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신뢰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3년 차 사업을 통해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는 더욱 잘 준비된 기획으로 영화와 사람이 연결되는 문화를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직접 기획자와 실무자가 되어줄 것을 제안했다. 세부 사업을 처음부터 운영위 내에서 설계하고 검토했다. 때로는 장시간 토론을 이어가며 원점으로 돌아가 사업을 들여다보는 경우도 많았다. 그만큼 단순하게 참여자를 모집하고, 그들에게 어떤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서 오는 한계에 공감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의 콘텐츠와 경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 2023년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는 워크숍, 멘토링, 활동지원, 기획지원, 네트워킹과 같은 형식에 기반하여 영화와 사람이 연결되고 문화를 안착시키는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 **INTERVIEW #01**

#### **부산 영화 활동가들을 위한 유용한 플랫폼이 되길**

김민우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 운영위원 / 부산영화평론가협회 간사

올해는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가 이전보다 협력단체와 운영위원회를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과 단체와의 화합이나 조율이 중요했다. 올해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역할을 하며 개인적으로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산은 확실히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매개로 활동 중이다. 다만, 범위가 넓은 만큼 서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 수도권으로 떠나는 창작자나 제작사들도 많다.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는 따로 떨어진 영화 활동가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산의 영화 활동가들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고 싶다. 최근 긴축 분위기가 있어서 내년 예산이 삐걱한 상태지만 지역 유관기관에서 협력해 계속할 수 있으면 한다. 보조금 사업을 통해 생각지 못했던 부산의 활동가들이나 예비 영화 활동가들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성원들의 열의와 화합이니 이 부분을 잘 모아서 활동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 2023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

### **프로그램 소개**

먼저, ‘워크숍’에서 주안점으로 두었던 부분은 단순히 영화와 관련한 기술적 요소를 습득하고 그것을 응용해 영화를 만드는 경험을 답습하는 형식을 피하는 것이다. 또한 워크숍에서 영화 제작을 매개로 이르고자 했던 가치는 ‘젠더’와 ‘로컬’이다. <문밖에 또 다른 누군가가>, <누군가의 문밖으로: 로케이션, 스냅, 에세이>는 그런 고민이 반영된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만의 특화된 ‘영화 매개 워크숍’이라고 할 수 있다.

‘멘토링’은 부산 지역에서 영화 문화와 관련한 활동을 계획하고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1:1 매칭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8주완성 영화과외교실>은 단순히 관련 지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지역에서 영화 문화와 관련된 경험을 교감하는 시간이 되기 바라며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활동지원’과 ‘기획지원’의 경우 영화를 매개로 하는 창작활동(전시 개최), 영화를 개성 있는 관점으로 소개하는 상영기획, 영화와 관련해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소모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쇼잉>(상영기획&상영회 개최), <영차영차 부산 영화인 소모임 지원사업>, <FxA Project 2023>(영화 매개 창작 지원&전시 개최)라는 이름으로 영화와 사람을 만나게 된다.

‘네트워킹’은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분야다.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을까? 워크숍을 통해서 영화를 제작하면 사람들이 그 과정 내에서 자발적으로 인적 연결망을 만들어 갈까? 활동을 지원받고, 기획을 지원받은 개인과 그룹들이 지속성을 인정적으로 확보하고 소규모 그룹에서 확장해 그룹과 그룹이 모이는 연결망을 만들어 갈까? 너무나 많은 가능성과 질문이 이어지는 것 이 네트워킹이었고, 프로그램의 개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네트워킹이었다.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는 ‘어떻게’ 부산 영화문화 저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연결할까?라는 고민에서, ‘무엇을 통해’ 이들을 연결할까?라는 고민으로 차츰 이동하기 시작했다. 워크숍, 멘토링, 활동지원, 기획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단순 참여가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통해’ 서로를 인식해 나가고, 공감대에 기반해 연결의 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영화인간>은 그런 고민이 담긴 프로그램이다. <영화인간>에서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느끼고 있는 공통의 경험과 문제를 서로 질문하고 경청하는 것을 통해 지금 이곳에서의 희망을 이야기 해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가 가장 공을 들여 배치한 프로그램은 <영화문화 활동가 양성과정 워크숍>이다. 이 양성 과정을 통해 창작자, 전문 기술 분야, 유통과 배급, 평론과 저널리즘과 아닌 부산의 영화문화 생태를 설계하고, 새로운 그룹과의 네트워킹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과 감각을 가진 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부산 영화문화 생태를 수강생들에게 소개해야 했고, 실무의 과정을 경험할 특별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야 할 필요도 느꼈다. 부산 로컬시네마를 제작, 영화제, 비평, 배급의 측면에서 소개하고, 영화제와 커뮤니티 시네마의 현황과 실무를 현장 전문가의 경험을 통해 전했다. 이어지는 실무 과정 특별 프로그램은 수강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의 경험으로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 INTERVIEW #02

#### 영화문화를 만들어 본. 색다른 영화적 경험이었어요.

김혜원 영화문화 활동가 양성과정 워크숍 1기 수료생 / 대학생

워크숍에는 영화문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그 일을 자세히 알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 부산의 영화산업과 실무 이론을 틀어보고자 등록했고, 단기간에 넓은 주제를 다룰 수 있어 새로운 경험 이었다. 15명의 수강생과 부산에서 활동 중인 각 실무 강사님들과 10회에 걸쳐 ‘영화’, ‘지역(부산)’, ‘관객’을 어떻게 연결할지 사례로부터 배우고 직접 기획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의 연장선으로 ‘부산 영화인 인터뷰 리서치’와 ‘납량특집 상영회’ 중 하나를 선택해 실습을 진행했는데 앞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저는 상영회 기획으로 실습에 참여했다. 대학생 5인이 주축이 되어 씨네클럽 ‘주식회사 이상한 사람들’을 꾸리고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 주관 사업에 지원해 <오싹한 상영회>를 기획 및 운영했다. 평소 친구들과 주제를 정해 OTT 작품을 함께 보는 이른바 ‘랜선단관’을 자주 하는데, 극장에서 좋은 장비와 넓은 공간을 확보해 수십 명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으니 뿌듯하면서도 준비과정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느꼈다. 문화에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구획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객보다는 기획자로서 행사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하나의 영화적 경험으로 남을 것 같다.

#### 정답 없는 사람과 문화 그럼에도 계속되어야 할

어느새 올해도 마지막 분기를 향해가고 있다.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는 3년 차 사업의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활동을 정리하는 ‘컨퍼런스 데이’ 개최를 통해 새로 다가올 겨울과 이후의 봄을 준비할 예정이다. 사람과 문화, 그리고 네트워킹에는 교과서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다. 정해진 효과를 유발하는 검증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실행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젝트에 어려움과 변수가 많이 따른다는 것일 거다. 사람들이 참여할 만한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내놓는 것은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쌓이면 점점 익숙해진다. 하지만 그렇게 관성적으로 내놓는 일정 수준을 갖춘 프로그램이 문화를 지역에 세심하게 안착시키는 결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몇몇 이들은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의 일을 소모적이며 장식적이고,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치는 일이라고 여긴다.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지만 어떤 점에서는 그들의 이야기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그렇기에 아직까지 다양한 경험을 수집하고, 수집된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되지 않는 영역에서 수치로 평가할 수 없는 모험을 해보아야 한다. 3년 차에 접어드는 사업을 이끌면서 사람과 문화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한다. 짧지 않은 시간을 통과해 오며 정답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이 사업에서의 시행착오가 견인해 내는 것이 부산 영화의 결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거대하고 빛나지 않더라도, 이 작은 희망을 연결해 나가는 일이 성장, 배려, 실험을 바탕으로 지속되길 바란다. 정호준

#### 오민욱

영화감독, 부산독립영화협회 대표. 2019년부터 부산독립영화협회 대표를 맡고 있다. <유령의 해>(2022), <해협>(2019), <범전>(2015) 등의 장편영화를 발표했다

#### 2023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 운영위원

오민욱 부산독립영화협회\* 대표. <해협><범전><재> 등 연출

김지연 부산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부산영화평론가 협회원

이남영 칸파삐아 필름\* 대표. <두 사람><겨울의 끝><강을 건너는 사람들> 연출

문창현 오지필름\* 대표. <기프실> 연출

장희철 영화문화협동조합 씨네포크\* 이사장.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상콘텐츠융합학과 교수

김미라 공간나라\* 대표

최용석 우리동네공유극장 무사이\* 대표. 마을교육공동체 북적북적협동조합 이사장

최예지 영화배급협동조합 씨네포크 이사

김민우 부산영화평론가협회\* 간사

황예지 부산평화영화제\* 간사

#### \* (서)부산독립영화협회

1999년 부산 지역에서 독립영화의 제작, 배급 및 학술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모여 창단. 부산에서 독립영화의 제작, 상영, 배급, 교육을 담당하고 부산 영화정책을 제안하며 일반인들에게 독립영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 씨네포크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설립을 목적으로 2019년 발족한 영화문화협동조합 씨네포크는 영화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자생력을 갖기 위해 극장의 설립과 운영 주체가 개인이 아닌 관객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 \* 씨네소파

영화배급협동조합 씨네소파는 사람과 영화의 건강한 만남을 위해 독립예술영화배급, 영화 매개 문화예술 향유사업, 지역커뮤니티 및 문화예술 사업, 공간 거점 사업 등의 일을 한다.

#### \* 부산영화평론가협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는 지역 유일의 영화 비평가 그룹이다. 영화 학술지와 세미나, 심포지엄, 영화상 시상 등 부산 영화문화를 위한 비평 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 오지필름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다큐멘터리 창작 공동체. 2011년 1월부터 소외된 사람과 기록의 가치가 있는 현장을 향해 카메라를 들었다.

#### \* 칸파삐아 필름

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 영화인들이 설립한 영화사. ‘칸 영화제’를 꿈꾸며 2016년부터 다수의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5인 5색 다채로운 경험과 이야기를 작품으로 녹여내기 위해 고민한다.

#### \* 공간나라

공간나라는 2018년 9월 설립되어 지역사회의 문화와 예술의 창의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민들과 문화활동가, 예술가들과 소통 및 교류한다.

#### \* 무사이

무사는 영화, 책, 공연, 전시 문화를 통해 일상의 즐거운 리듬을 만드는 다목적 로컬 복합문화공간이다.

#### \* 부산평화영화제

2010년 첫 발을 내디딘 부산평화영화제는 부산어린이어깨동무가 주최하며, 영화를 통해 모두 함께 평화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자리이다.

#### 2023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 프로그램

↳ 8주완성 영화과외교실

↳ 문밖에 또 다른 누군가가

↳ 누군가의 문밖으로

↳ 보쇼잉

↳ FxA Project 2023

↳ 영차영자 부산영화인 소모임 지원사업

↳ 영화문화 활동가 양성과정 워크숍 1기

↳ 영화인간

↳ 운영위원회의

↳ 컨퍼런스 데이

↳ 백서 발간



광안리 바다와 금련산 사이에 특별한 학교가 있다. 아시아 영화계 미래들이 날개를 펼치기 위해 모인 곳. 부산 아시아영화학교(AFIS)는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다채로운 아시아 영화인을 키우는 산실이다. 올해 8월 14일 오후, AFIS에서는 달시 파켓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었다. 영화 <기생충>(2019)과 <헤어질 결심>(2022)을 번역한 그는 ‘영화와 심리학’ 수업을 영어로 진행했다. 아시아 10여 개국 학생들은 그의 말에 집중하거나 핵심 내용을 받아 적었다. 쉬는 시간에 만난 달시 교수는 “사람을 이해해야 스토리텔링을 잘 할 수 있고, 스태프와 효율적으로 대화하려면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며 “박광수 감독도 심리학을 배웠다는 말을 들어 이 강의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수영구 광안동에 개교한 AFIS는 아시아 최초의 국제 영화비즈니스 아카데미다. 아시아 영화 시장을 주도할 프로듀서 등을 키우면서 부산과 한국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영화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학교 건물은 3층짜리 옛 공무원교육원을 리모델링한 곳이다. 강의실과 기숙사뿐 아니라 스튜디오·녹음실·편집실·영상 실습실 등을 마련했다. 봉준호 감독 등 세계적 영화인을 배출한 한국영화아카데미(KAFA)가 바로 옆 이웃이다. 창밖으로 푸른 나무들이 보이는 학교에서 아시아 영화인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 아시아 영화 인재의 탄생

AFIS 학생들은 프로듀싱 정규 과정인 '국제 영화비즈니스 아카데미(IFBA)'에서 전문가로 거듭난다. 아시아 전역에서 발굴한 소수 인재가 프로듀서 실무 교육을 받는다. 올해는 부산 학교에서 2학기 과정을 7개월 동안 운영한다. 13개국에서 온 영화인 17명이 재학 중이다.

IFBA는 영화 투자·배급·제작·마케팅 등 프로듀싱 전반을 가르치고, 장편 극영화 프로젝트 기획과 개발을 위해 개별 교수 멘토링도 진행한다. 'AFIS 프로젝트 피칭'을 열어 국제 무대에 학생들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제작·투자·배급사와 미팅 기회도 제공한다.

다채로운 교수진이 학생을 가르친다. <올드 데이즈>(2016)를 연출한 플레이인 피처스 한선희 대표, <살인의 추억>(2003)과 <아가씨>(2016) 등을 번역한 달시 파켓 평론가가 겸임교수다. <리틀 포레스트>(2018)를 제작한 구정아 프로듀서, <작전>(2009)을 연출한 이호재 감독, <남쪽에서 온 편지>(2013)를 만든 아딧야 아사랏 감독, 뉴욕에서 영화와 교수를 역임한 방준원 감독 등이 초빙교수로 있다.

2017년부터 특강이나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170명에 이른다. 칸영화제 크리스티앙 전 프로그래머, 베를린국제영화제 미나시 쉐데 인도·서남아시아 선정위원, 아강가필름아시아 프란 보르지아 대표, 옥토버피쳐스 추천온 대표뿐 아니라 국내 영화제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영화인이 참여했다.

지난해까지 IFBA 과정은 26개국에서 영화인 119명이 수료했다. 2017~2019년 부산에서 59명이 6개월 과정을 마쳤다. 코로나19 여파도 극복했다. 2020년에는 교육이 취소됐지만, 2021년부터 온라인과 현장 교육을 병행했다. 올해부터는 전면 현장 교육으로 전환됐다. 내년부터는 부산지역 청년들을 위한 영상분야 경영, 마케팅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비즈니스 과정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 해외에서 들려오는 낭보

교육 성과는 세계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다. 올해 8월 제76회 로카르노 영화제 경쟁 부문에 IFBA 출신 제작자 작품이 진출했다. 2018년 출연한 중국인 수지엔상이 도미닉 생마 감독 장편 영화 <랩쳐>(2023)의 메인 프로듀서였다. 영화는 약 80일 동안 완전한 어둠이 예언된 상황에서 야맹증을 가진 소년이 마을에 닥친 혼란을 목격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인도와 중국·카타르·네덜란드·스위스에서 제작에 참여했다.

올해 5월 제76회 칸영화제에서는 IFBA 졸업생들이 참여한 영화 <노란 누에고치 깁데기 속>(2023)가 두각을 드러냈다. 베트남 졸업생인 레 꾸민 안과 싱가포르 졸업생 샘 주아 웨이시 등이 제작한 작품이다. 영화는 감독주간에 초청된 데 이어 티엔 안 팜 감독이 황금카메라상을 받는 쾌거를 올렸다. 황금카메라상은 세계 최고 권위의 신인 감독상으로 꼽힌다. 칸영화제에서는 지난해에도 낭보가 들려왔다. 네팔 출신 아눕 포델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단편영화 <로리>(2022)가 단편황금종려상 특별언급상 등을 받았다.

한국 상업영화를 리메이크해 해외에 판매하고, 한국 개봉을 성사한 경우도 있다. IFBA 출신인 항 쪐 프로듀서는 지난해 한국 원작을 각색한 작품 <묘이: 저주, 돌아오다>(2022)를 연출·제작해 13개국에 판매했다. 지난해 9월 모국인 베트남에서 개봉 주 흥행 2위를 기록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한국 극장에서도 관객을 만났다.

IFBA 졸업생들은 베니스국제영화제,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몽고메리국제영화제 등 곳곳에서 활약을 이어왔다. 부산국제영화제(BIFF)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등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 폐막한 제27회 BIFAN에서는 말레이시아 졸업생 리 이본이 제작한 영화 <걸신포차>(2023)가 '넷팩상'을 받았다.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가 최고 아시아 영화를 선정해 주는 상이다. 한국 졸업생 이용희가 참여한 작품 <어브로드>(2023)는 '코리안 판타스틱 관객상'과 남우주연상 급인 '코리안 판타스틱 배우상'에 선정됐다. 그는 협력 PD로 작품에 참여했다.

AFIS 안지혜 팀장은 "부산에서 진행한 교육 성과가 세계 곳곳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연출, 촬영보다 프로듀싱 교육 성과는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드러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콘텐츠를 만드는 한국에서 영화를 공부하길 원하는 아시아 학생이 많다"며 "아시아 국가에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영화와 관련한 교육도 효과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발돋움하는 부산 영화인

AFIS는 부산 영화인과 시민 교육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영화·영상을 교육하는 '부산영상아카데미'를 운영해 영화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부산 영화인 경쟁력뿐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 수준과 시야를 넓혔다.

영화인 교육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분야에서 진행했다. '영화·영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뿐 아니라 '후반작업 멘토링'과 '자막 번역 지원' 사업 등을 펼쳤다. 이러한 교육은 대학과 현장의 간극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를 만나 현장 노하우와 기술 등을 배우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업계 진입 장벽을 낮추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전공 교육을 받았더라도 업계 진출과 현장 분위기 적응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부산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도 이어졌다. '부산시민영화강좌'와 AFIS와 함께하는 KAFA 동문 씨네토크' 등으로 부산 시민을 만났다. '지역특화 진로 프로그램'과 '수영구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으로 부산 청소년들이 영화를 색다르게 느낄 자리도 만들었다. 올해부터 시민 교육은 영화의전당이 전담하게 됐지만, AFIS는 영화인 전문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영상아카데미가 진행한 영화인·시민·청소년기타 교육은 4,307명이 수료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영화인들은 후반 작업이나 자막 번역 지원 등이 큰 도움이 됐다. 일례로 지난해 부산독립영화제에 상영한 박지선 감독 <마녀들의 카니발>(2022)은 자막 번역에 도움을 받았다. 이준상 프로듀서가 제작한 영화 <하나>(2018)는 후반작업 멘토링 사업을 받아 완성됐고, 2018년 수버스영화제·시체스국제판타스틱영화제·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등에 진출했다. 이 프로듀서는 “당시 전문가에게 색 보정과 음향 등에 대한 멘토링을 받으며 후반작업을 진행했다”며 “교육을 받는 동시에 작품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넓어지는 글로벌 네트워크

AFIS는 부산이 ‘아시아 영화의 허브’로 도약하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영화계에서 선전할 아시아 영화인들이 부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에 흡수됐고, 새로운 축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어느덧 AFIS를 거쳐 간 국내외 영화인들은 작품을 함께 만들기 시작했고, 아시아 다양한 국가에서 촬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로 돋기도 했다. 영화계 교류뿐 아니라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보이지 않는 도움을 줄 정도로 민간 외교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부산에서 생긴 네트워크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넓힐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AFIS는 그사이 로카르노 영화제, 낭트3대륙 영화제, 프랑스 국립고등 루이 류미에르 학교, 타이베이 영상위원회뿐 아니라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양원선재단 등과 교류와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이 후원한 ‘한-ASEAN 영화공동체 프로그램’을 주관했고, 부산국제영화제(BIFF) ‘아시아영화아카데미’와 부산국제여린이청소년영화제(BIKY) ‘부산국제청소년영화캠프’ 등을 공동 주최한 경험도 있다.

부산아시아영화학교는 2015년부터 부산영상위원회가 위탁 운영을 해왔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운영을 맡았고, 올해 다시 위탁 심사에 들어간다. 올해 7월 운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상태이지만, 현장에서는 교육이 아닌 위탁 준비에 자주 행정력을 쓰는 게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다. 부산과 아시아 각국의 영화 인재를 키우고,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확장 중인 AFIS가 더욱 도약할 방안은 무엇일지 전반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

### ‘아시아 영화의 허브’ 부산을 만든다

부산아시아영화학교 달시 파켓 겸임교수



달시 파켓 교수는 이번 학기 AFIS에서 수업 2개를 맡았다. ‘영화와 심리학’뿐 아니라 ‘아시아 영화사’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아시아에서 영화가 발전한 과정과 중요한 감독들을 돌아보는 수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지금은 없어진 홍콩 영화 스튜디오 시스템을 배우면 요즘 영화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출과 촬영이 중심인 다른 학교와 달리 AFIS는 프로듀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게 강점이라고 했다. 여기에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서 프로듀서로 성장할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단 게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달시 교수는 “한국 영화계가 발전하는 데 프로듀서 역할이 컸다”며 “졸업생들이 교류를 이어가며 좋은 영화를 제작하면 각국의 영화 산업 발전을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AFIS가 펼치는 교육은 부산이 ‘아시아 영화의 허브’ 자리 를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 그는 “환경이 다른 나라에서 부산에 모인 학생들이 서로 영화를 만드는 경험을 공유하며 배우고 있다”며 “앞으로 부산에서 촬영을 하거나 부산 영화계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 지역 영화인들의 길잡이가 되다

영화사 손가락 이준상 대표



이 대표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영화 프로듀서다. 영화 <동화>(2018)와 <양치기>(2022) 등을 제작했다. 2014년부터 영화사 손가락을 운영하면서 여러 작품을 만들었다.

그에게 AFIS 부산영상아카데미는 새로운 길잡이였다. 일본의 나카니시 마이 감독 작품 <하나>를 제작할 당시 후반작업 멘토링을 받았고, 영화는 국내외 6개 영화제에 진출했다. 그는 “다양한 과정을 수료하며 후반작업뿐 아니라 많은 걸 배웠다”며 “단편영화 제작 부터 수중 촬영까지 영화를 만드는 데 여러 노하우를 얻힐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현업 영화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얻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게 좋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서울 영화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으며 부산에서 얻기 힘든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었다”며 “업무를 보면서 세부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업을 들으면서 부산에서 제작사를 운영하거나 영화·영상 업계에 몸담은 분을 많이 만났다”며 “교육을 듣는 것뿐 아니라 지역 영화인과 네트워크가 생긴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 이우영

부산일보 문화부 기자. 부산에서 영화와 영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부에서 오래 일하다가 디지털미디어부에서 영상 제작을 잠시 경험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BIFF) 파견 근무를 계기로 문화부에 지원했다.  
verdad@busan.com



## 작품의 마지막 관문 시청자의 첫 번째 길라잡이

인터뷰 진행·정리 <영화부산> 편집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극장을 방문하거나 영상의 재생 버튼을 누르면 관람객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표시가 있다.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초록색의 전체관람가 등급부터, 침을 한번 끌 깍 삼키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빨간색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까지. 국내에서 보는 모든 영화·비디오물은 이곳,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친다. 늘 우리의 일상에 있어 익숙하지만, 익숙하기에 더 궁금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채윤희 위원장을 만나보았다. 영상을 등급분류 과정과 기준부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올해 처음 시행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까지. 알고 보면 더욱 재밌는 영화·영상물이 시청자에게 닿기 전의 과정과 작품에 대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자.

### 영상물등급위원회 채윤희 위원장

#### 영상물등급위원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말 그대로 영상물에 대해서 등급을 정하는 기관이다. 영화비디오법 제71조에 의거하여 영상물을 연령 등급에 따라 분류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이 연령에 맞는 영상을 선택으로 보다 즐겁게 시청·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66년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로 설립돼 1999년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

#### 등급분류 과정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

등급분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이루어진다. 영상물 등급 분류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 사무국이 서류 검토 후 회의에 부친다. 이후 등급 분류 회의에서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들이 영상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한 후 등급을 결정한다. 그리고 결정된 등급을 업체에 통보하는 순이다. 회의는 오프라인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영등위가 위치한 부산에 있으며 서울에서도 회의가 개최된다. 등급분류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영화등급소위원회,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광고물소위원회, 공연주천소위원회로 나뉜다.

등급분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등급분류 고려요소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악물, 모방위험 총 7가지다. 각 영상물에 이 7가지 요소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전제적인 맥락 안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한다. 등급분류는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영화, 법률,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

사무국에서는 '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을 이용 실태조사'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비롯해 매년 등급분류제도 관련 연구사업 및 교육홍보 사업, 관계자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들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올해 시행된 OTT 자체등급분류와 해당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이전에는 OTT 사업자가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영등위 등급분류를 사전에 거쳐야 했다. 하지만 근래 글로벌 OTT 플랫폼이 대거 등장하고 글로벌 동시 개봉이 진행되는 콘텐츠가 생겨남에 따라 동시성과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렇듯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등급분류제도를 마련하고자 온라인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도입을 골자로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발의는 작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지정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받은 일정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는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권한이 부여된다.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해 이미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 등 국내·외 유사 사례들을 많이 참고했다. 업계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들의 의견도 듣고 청소년/학부모 시민단체와 국회 관계자, 주무부처와 함께 논의하며 오랜 시간 준비해 왔다.

#### 현재 자체등급분류제도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3월 본격 시행 이후 지정 사업 심사 및 사업자 교육 등을 실시했다.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국내외 OTT 7개사를 첫 번째 사업자로 지정하고, 7월 1일부터 자체 등급분류를 시작했다. 이어 LGU+의 2개 플랫폼이 두 번째로 지정되었고, 올해는 총 3차까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된 사업자들은 사전 교육과 책임자 교육이라는 필수 교육을 받는다. 교육을 받더라도 등급을 본인들이 정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등급분류교육'이라고 영등위 위원님들과 사무국에서 직접 업체로 가서 분류 교육을 해주기도 한다.

아직 제도 시행 초반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진행하고, 5년에 한 번씩 사업자 재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사업자들도 주의해서 등급을 분류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인해 영등위의 역할과 기능에 변화가 있나.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영등위의 업무가 많이 줄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등급이 적절하게 매겨졌는지 제도 시행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이뤄져야하기에 모니터링 업무가 추가됐다. 또 기존엔 일반 시민 대상의 교육만 진행했다면 이제는 사업자 대상으로도 교육이 진행돼 교육 업무도 확대됐다. 물론 자체등급 분류제도 시행으로 온라인 영상을 심의 물량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은 된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 폐지로 9월 1일부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가 시행됨에 따라 심의 물량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수 있을 듯하다.

#### 이외 영등위에서 집중하고 있는 과제와 추진 중인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 코로나19 이후로 영상물이 점점 많아지고 이런 영상물에 대한 청소년들의 노출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이 중요해졌다.

영등위에서 '청소년 영상을 등급교실'이라고 전국의 학교로 전문 미디어 강사들을 파견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최근 신청 건수도 계속해서 늘고 학교 층에서 먼저 많은 관심을 보이더라. 또 기관 방문 프로그램인 '등급 분류 체험 프로그램'도 청소년들한테 반응이 좋다. 기관에 방문한 학생들이 등급 분류 교육을 사전에 받은 후 영화를 보고 7가지 등급분류 항목별로 직접 등급을 매겨보는 거다. 그렇게 도출된 최종등급과 등급 도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적어보는데 본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보니 다들 재밌어한다. 이외에도 꾸준히 하고 있는 정례사업인 조사 연구사업, 청소년 교육, 학부모 교육, 시민참여 행사 등이 있다.



#### 영등위 위원장으로 취임할 때 세운 목표가 있다.

옛날에 검열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영상물등급위원회'하면 괜히 업계가 느끼는 고리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고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영등위와 업계 현장과의 소통이 잘 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지금은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한다. 우리는 검열 기관이 아니라 서비스 기관이라고. 표현의 자유와 창작자의 권리라는 다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니 우리는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업계나 시민들한테 임하자고 말이다. 우리는 영상물 이용 문화를 선도하고 영상물의 등급 분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영상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등급 분류를 직접 하는 것도 영등위가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검색하면 해당 작품 연령 등급뿐만 아니라 그 작품이 어떤 이유에서 그 등급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일부 작품은 정보가 부족한지 등급 결정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학부모 가이드처럼 보호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갈 때 관람에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 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으면 한다. 물론 영상을 정보라는 것이 업계와 시민 사이의 적정성을 찾는 것이 쉽지 않더라. 너무 자세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작품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정한 수준의 정보제공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 마지막으로 <영화부산> 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등급이나, 작품의 정보 제공 서비스를 조금 더 유의 깊게 보고 시청하시면 좋겠다. 법적으로 영상 시작 전 3초간 등급 분류가 표시되게 되어있는데 사실 대부분 그걸 유심히 안보지 않나. 저도 예전에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영등위에 온 후로 영상을 볼 때마다 등급과 표시사항이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보는 습관이 생겼다. 영상을 보다가도 또 '이거 몇 세 등급이었지'하고 다시 확인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등급이 맞나 생각하기도 하고 말이다. 다른 분들도 한 번쯤은 내가 보는 영상물에 대한 등급과 어떤 내용 정보로 영화가 꾸려졌는지를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같은 연령등급이라도 7가지 기준이 각각 어떻게 표현되었는지가 작품마다 다 다르니 말이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영화계가 너무 어려운데 <영화부산>을 읽으시는 분들이 한국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영화는 꼭 극장에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영화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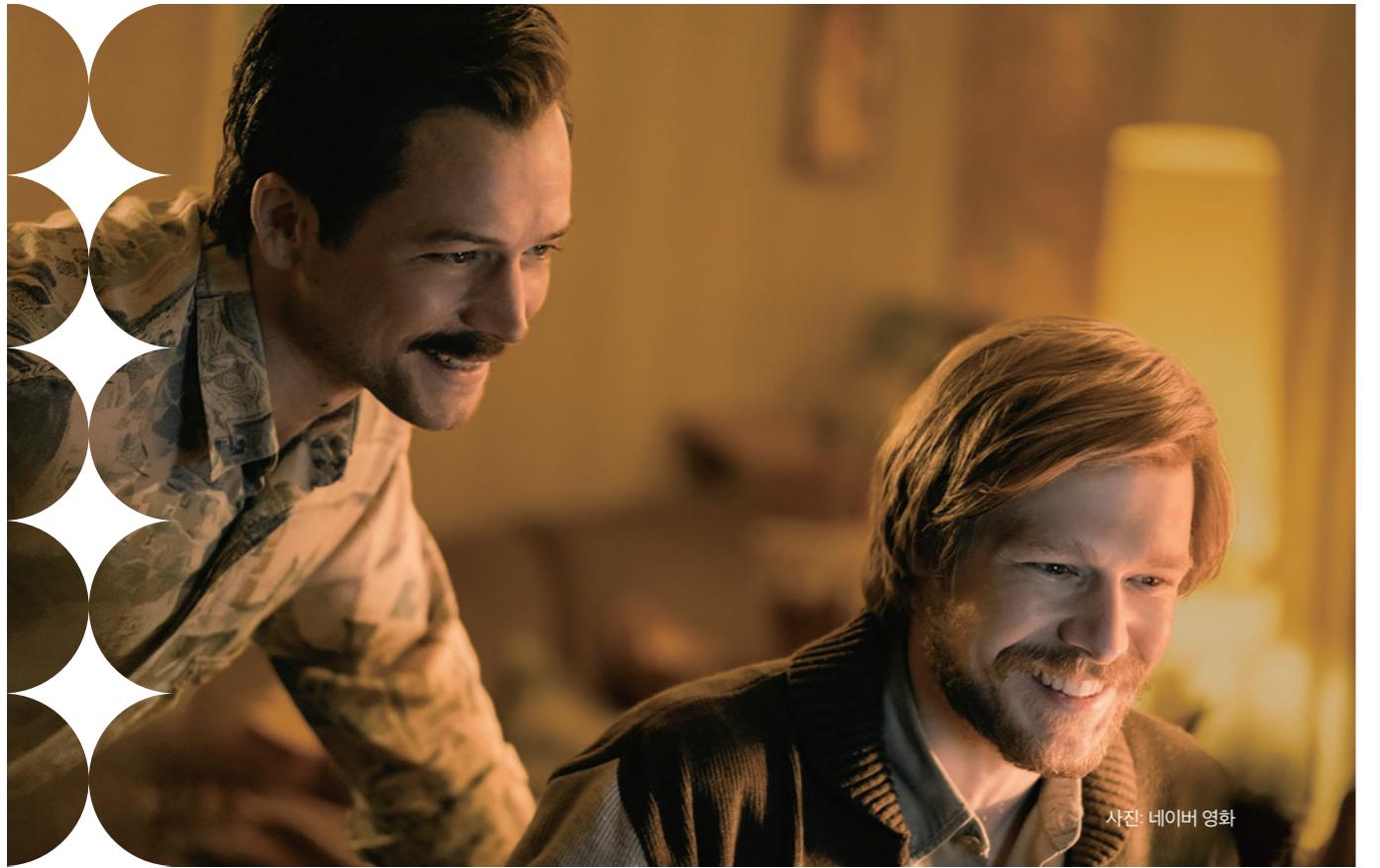


사진: 네이버 영화

## 포커스온OTT

# 길 잃은 게임

<테트리스Tetris>(2023)

감독 존 S. 베어드

주연 태런 에저튼, 토비 존스, 니키다 예프모프레

채널 Apple TV+

불렛프루프 소프트웨어의 세일즈맨 행크 로저스(태런 에저튼 분)는 박람회에서 우연히 접한 게임 ‘테트리스’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엿본다. 그는 단순하면서도 그 안에 과학과 예술의 원대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이 퍼즐게임의 판권을 따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협상을 시도한다. 때는 1980년대 후반, 점차 PC나 아케이드 기계뿐만 아니라 닌텐도를 통해 게임을 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행크는 테트리스의 휴대용 저작권을 갖기

위해 미국 판권을 가진 미러소프트와 계약한다. <테트리스>는 게임 테트리스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개인, 기업, 국가가 얹힌 권리 전쟁의 복잡한 뿌리를 다룬다.

게임의 발명이나 개발 과정이 아니라, 게임을 누가 소유하고 그 가치를 얼마나 주장할 수 있는지, 소위 이권 다툼에 관한 비화를 민첩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얼핏 데이빗 핀처의 <소셜 네트워크>(2010)가 떠오르기도 한다. 행크를 비롯해 미러소프트

의 CEO인 두 부자(父子), 안드로메다 소프트웨어의 로버트 스타인(토비 존스 분)이 러시아로 입국해 수뇌부들과 협상할 때 <테트리스>는 에스피오나지<sup>1)</sup> 장르가 겹쳐 보인다. 나만이 독점적인 정보를 가져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첨보영화의 골조를 빌려온 영화의 선택은 여지없이 수긍할 만하다. 실제로 이 분쟁은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와도 엮이며 정치적 문제로 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사실상 <테트리스>에서 주인공은 영화의 소재이자 비인간·비물질적 존재인 테트리스라는 게임 그 자체이다. 달리 말해 우리에게 처음 모습을 보이는 ‘얼굴’ 행크는 사실상 테트리스에 대한 반응자로서 존재하는 듯한 인상이다. 그리하여 영화를 보기 전 짐작했던 (행크 로저스에 관한) 전기적(biographical) 요소가 <테트리스>에는 거의 없다. 다만 전술했듯 <테트리스>는 커다란 범주에서 첨보영화와 비슷한 플롯으로 진행되는데, 그래서 이 영화에 외국어가 난무한다는 사실을 곱씹어보는 것은 꽤 유효하겠다. 행크가 처음 소련의 기업 엘로그에 들어설 때, 문 앞에는 몇몇 러시아인들이 통역을 자처하며 서 있다. 행크는 언어의 한계에 닥치자 사샤라는 통역사를 급하게 고용해 동행한다.

그러나 통역에도 불구하고 행크와 엘로그 측의 대화는 끊임없는 차단과 분절을 반복한다. 이 점에서 영화가 그리는, ‘철의 장막’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국가/체제는 매우 단선적이다. ‘미국에서 자랐지만 일본인 아내와 살며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의 피가 섞인’ 정체성을 가진 행크의 내력을 인물 스스로, 그것도 실패한 농담처럼 빌화하게 함으로써 디아스포라의 재현을 평이하게 일축하고, 인물들은 미국, 일본, 소련을 오가지만 각 지역의 구체성은 보이지 않으며 이들의 이동은 그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하기하는 장면쯤으로 제시될 따름이다.

첨보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보다 나-우리가 더 아는/갖는 것이라는 양적인 문제보다, 먼저 아는/갖는 것으로서 순서와

1) 에스피오나지(espionage)는 프랑스에 기원한 영단어로 스파이의 첨보활동을 가리킨다. 장르로서의 에스피오나지는 스파이의 첨보 활동을 다른 영화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스파이가 등장하는 모든 영화를 가리키지만, 일반적으로는 현실적인 스파이 활동을 가감 없이 다른 사실적 영화를 판타지 첨보영화와 구분해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이보라

<씨네21>과 부산영화평론가협회에서 비평이 당선되어 평론 활동을 시작했다. 동시대 영화를 구성하는 문화와 제도에 대해 질문하는 글을 쓰기 위해 공부한다. deborahbrlee@gmail.com

질서의 문제일 테다. <테트리스>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사물이 나 수치로 가늠할 수 있는 재력이 아니라 ‘권리’에 관한 분쟁을 다룸으로써 이 장르의 설정을 명쾌하게 획득하지만, 첨예한 갈등 속에서 복수(複數)의 주체들과 각자의 위상이 엇박자를 그리는 과정을 유연하게 따라가지는 못한다. 특히 타자의 입체성에 둔감해서, 소련 정부기관의 이미지는 거의 방기된다. 이 자점에서 인물들이 이토록 상투적이며 이들의 행위 또한 뻣뻣하게 재현되는 것은 혹시 (<개임: 행위성의 예술>에서 C. 티 응우옌이 말하듯) ‘동기 역전’이 일어나는 게임 속 플레이어들을 환유하는 걸까? 하는 과한 상상이 스쳤다(그러나 이 영화의 경직된 면모는 게임에서 역설적인 자발성을 발견하는 응우옌의 통찰과 대치된다).

아쉬워서 인상적인 두 개의 장면을 떠올려본다. 하나, 행크가 테트리스를 집으로 가져오자 자녀들은 게임에 몰입하느라 어느 때보다 고요하다. “우리 집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있어?” 게임은 도리어 침묵을 발화한다. 영화가 이 정적에 조금 더 투항했다면 게임에 관한 근사한 고찰이 나왔을 수도 있다. 다른 하나, 행크가 테트리스의 발명가인 알렉세이 파지트노프(니키타 예프레모프 분)와 우정을 쌓게 되는 궁극적인 장면은 바로 파티 현장인데, 여기서 행크는 러시아어를 알아들을 수 없지만 영어로 된 가요만큼은 함께 부를 수 있다. “모두가 가사를 아녜요”, “좋은 생각에는 국경이 없죠”라는 둘의 대화가 연대의 안온한 지점만을 수렴하여 둘(과 그 이상) 사이에 놓인 정치적 맥락이 표백되어 선 곤란할 것이다. 영화부자



사진: 다음영화(Daum)

영화관에 간 심리학

# 한 잔 더? - 나 아직 살아 있어!

<어나더 라운드Another Round>(2022)

감독 토마스 빈터베르그

출연 매즈 미켈슨, 토마스 보 라센, 마그누스 밀랑, 라르스 란데

재미없는 선생님, 매력 없는 남편,  
권위를 잃은 아버지로부터의 탈출!

역사 선생님, 마틴(매즈 미켈슨 분)은 오늘도 지루하기 짙이 없는 수업을 이어 나간다. 목소리에는 힘이 없고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중이다. 그런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학생과 부모들로부터 “당신의 수업을 듣고 나서 원하는 대학을 갈지 의문이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간다”는 컴플레인을 직접 듣는다. 마틴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위축되고 친구이자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내가 왜 이런 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한다. 남자로서의 매력도 사라져 버린 그는 아내에게 조차 외면당한다. 스스로 이전과 달라진 모습에 우울하고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아이들의 태도에 상처받는다.

마틴의 모습은 중년기 남성들이 보이는 갱년기 증상과 유사하다. 한 중년 남성 연구에 따르면, 중년 남성 65.1%가 갱년기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갱년기 증후군은 신체적으로

체력과 지구력 감퇴, 기력감퇴, 성욕 감퇴 및 발기력 감퇴 등의 증상을 보인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건망증이 심해지고, 집중력 저하 및 자신감 저하, 막연한 불안감과 우울 등을 느끼는 정신적 증상을 경험하는데 이는 중년 남성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up>1)</sup> 우울 증상이 심해지면 자살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 언제나 최소 0.05%의 혈중 알코올 농도 유지할 것! 밤 8시 이후엔 술에 손대지 않을 것!

마틴과 같은 학교의 교사인 니콜라이(마그누스 밀랑 분), 피터(라르스 란데 분)는 “인간은 알코올 농도가 부족한 채 태어나며, 0.05%를 유지하면 적당히 창의적이고 활발해진다”라는 한 노르웨이의 의사가 주장하는 가설을 직접 실행해 보기로 한다. 이 가설은 신뢰성은 별도로 있다고 해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솔깃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술만큼 좋은 친구가 어디 있으랴…

인간의 역사와 술의 역사는 함께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술이 있고 술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경향성은 잘 익은 열매를 구별하기 위해 진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 열매에서 나는 ‘에탄올 향기’는 그 열매가 얼마나 잘 익었는가를 알려주는 단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 잘못 적용된 결과가 현대의 알코올(술)이라는 인공물질의 과도한 섭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니 잘 익은 과일이나 술이나, 날파리들이 똑같이 달려드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잘 익은 과일의 에탄올 함량은 겨우 0.6%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화가 반드시 적응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sup>

처음에 그들의 실험은 그런대로 성공적으로 보이기도 했다. 우울하고 무기력하기만 했던 마틴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신명 나게 수업하고 아이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시작한다. 일에서 자신감을 얻은 마틴은 소원했던 가족과의 관계도 복원해 나간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알코올 도수를 높여가자는

제안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고, 점점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술은 인류 최초의 약물로 장기간 많이 복용하면 중독이 될 수 있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린 토미는 해고당하고 ‘나처럼 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한다.

중년의 남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가족을 위해 또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살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했던지를 잊고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나이를 먹고 몸과 마음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돌아봐주지 않는다는 생각, 혼자라는 느낌에 작고 초라해질 뿐이다. 그때 기댈 수 있는 것, 언제나 곁에 있어 주는 존재가 술이라는 존재일 것이다. 실제로 술은 진정제나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

영화 <어나더 라운드>에서 술이란, 지친 현대인들에게 일상의 스트레스를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일종의 해방, 탈출구 같은 존재이다. 지나친 스트레스에 억눌리고 위축된 마틴이 술을 마심으로써 긴장을 풀고 본연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는다는 면에서 술의 순기능에 더욱 초점을 둔 것 같지만, 술은 하나의 수단일 뿐,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었다면, 그저 알코올중독자가 될 뿐이다. 영화의 엔딩장면에서 마틴이 추는 춤은 아직 자신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자유롭게 인생 제2의 라운드를 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영화감상

1) 백선숙, 염순교, 조주연 <중년 남성의 갱년기증상,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2014)

2) 박소진 <영화 속 심리학>(2014)

## 박소진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과 무관한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문득 사는 것에 회의를 느껴 비교적 늦은 나이에 ‘나를 찾고 싶다’는 생각으로 심리학에 입문, 발달장애 및 발달심리 박사를 수료했다. 현재는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대표로, 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심리학의 관점에서 영화를 해석해 보는 책들을 집필하고 있다.

# FILM REVIEW

필름리뷰 코너는 부산 평론가들의 활동과 글을 응원하고자 마련된 공간입니다.

## 열쇠를 준 소녀

김은정



<비밀의 언덕>(2023)

감독 이지은  
주연 문승아, 임선우, 장선,  
강길우, 장재희

진심을 담은 글은 어떻게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그것이 에세이든, 시든, 기사든, 작은 쪽지에 쓰인 한 문장이든 말이다. 또, 과연 좋은 글쓰기 방법은 무엇인가. <비밀의 언덕>을 보며 이런 생각이 곁가지로 뻗어갔다. <비밀의 언덕>에서 글쓰기는 주인공 명은(문승아 분)의 성장에 도화선이 되는 소재일 뿐인데 말이다.

이후 소녀는 거짓과 가장(假裝)으로 사려 깊고 유능한 반장이 되어간다. 반장으로서 받던 인정은 이내 글쓰기로 이어진다. 생애 첫 수필로 교내 글짓기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후 명은이는 글쓰기에 매진한다. 그러나 인정욕구라는 강력한 동기에 사로잡힌 명은이의 글은 교과서를 나열하는 재미없는 글이 된다. 게다가 강력한 라이벌 혜진이(장재희 분)도 등장한다.

<비밀의 언덕>은 비밀과 거짓말의 반복 사이에서 마음이 성장하는 아이 이야기다. 명은이는 비밀우체통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으로 반장이 된다. 또래의 평범한 공약(空約)이 아니라 무엇이든 불편한 점이나 걷의 사항이 있으면 자물쇠가 달린 비밀우체통에 쪽지를 남겨달라고 제안한다. 그러면 반장과 담임선생님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하겠다고 말이다. 이로써 비밀우체통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누구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다. 이때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는 쪽지에 쓰이는 짧디짧은 글이다.

명은이는 글로 마음을 표현하는 아이다. 비밀우체통 아이디어는 모두가 다 듣는 교실에서 가정환경조사를 하기 싫었던 명은이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가정환경조사를 교실이 아닌 상담실에서 따로 하고 싶다고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지만 이뤄지지 않는다. 젓갈 장사를 하는 엄마와 늘 잠만 자는 아빠가 부끄러웠던 소녀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교실에서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가장 신경 쓰는, 그래서 가장 솔직하지 못한 인물이 바로 명은이다. 그런 명은이가 비밀의 열쇠를 준다. 비밀우체통의 또 다른 역할은 자물쇠의 열쇠를 준 반장으로서 명은이의 존재감이다. 명은이는 친구들의 비밀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아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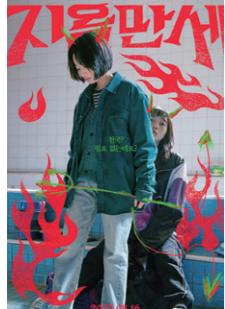
영화 속 명은이의 마지막 글 또한 편지 형식이다. 비밀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다. 하늘나라에 계신 외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글은 솔직하고 진솔해서 훨씬 더 큰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명은이는 그 글이 영원한 비밀이 되길 원한다. 대상을 받고 싶은 인정욕구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길 원하는 마음 사이에서 결국 소녀는 비밀을 택한다. 아무도 모르길, 특히 가족은 더욱 모르길 원한다. 그렇게 비밀로 묻어둔다. 명은이가 원고를 묻어버린 이유는 가족을 향한 자신의 속마음을 가족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다. 가족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아끼는 마음은 엄마에게 달려가는 소녀의 발걸음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눈빛에서, 그리고 칭찬의 말이 아닌 엄마의 얇은 미소에서 은근히 전해진다. 아이는 그렇게 성장한다. 미래 어느 날엔가 비밀의 언덕에 묻힌 솔직한 마음을 꺼낼 열쇠를 준 사람도 오직 명은이 뿐이다. ■

### 김은정

부산영화평론가협회원. 영화에 관한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종종 영화의전당에서 고전영화를 해설한다. 그 중 글쓰기가 매번 가장 어렵다.  
liketheque@naver.com

## 지상에서 삶을 약속하는 법

유선아



<지옥만세>(2023)

감독 임오정  
주연 오우리, 방효린,  
정이주, 박성훈

여기 두 소녀가 있다. 선우(방효린 분)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여학생 무리에게 휴대폰을 빼앗기고 공터를 거닌다. 문을 닫은 지 오래인 놀이공원 근처 수풀에는 목에 줄이 매인 개 한 마리가 있어 선우를 향해 애처롭게 짖는다. 선우도 개를 가엾이 여겨서일까. 잠시 뒤 개는 목줄이 풀려 수풀을 떠난다. 이후 선우가 찾은 곳은 아무도 찾지 않는 폐건물 속 목욕탕이다. 선우는 이곳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기원하며 춤을 추던 남희(오우리 분)와 만난다. 초록과 보라색 옷을 입은 여자애들은 말간 얼굴에 빛나는 두 눈은 생기로 가득한데도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자살을 모의한다. 남희 역시 학교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다. 분홍색 봉투에 담긴 유서를 고이 접어 선우에게 넘긴 남희는 눈을 질끈 감고 천장에 건 목줄에 목을 건다. 그러다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 채린(정희주 분)이 서울에서 유학 준비를 하며 잘 지내고 있을 거라는 말에 놀란 남희는 실수로 목이 매달리고 만다. 천장에 늘어져 버둥거리던 남희는 선우의 도움으로 간신히 아래로 내려온다. 둘은 자살을 결심하게 만든 당사자, 채린을 만나서 인생에 기스라도 내어보기 위해 서울행을 결심한다.

소녀들의 자살 모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지옥만세>를 보는 일은 이를테면 이런 일과 같다. 개를 가엾이 여겨 풀어주는가 싶더니 자기가 목을 매어 죽기 위해 개의 목줄을 훔친 여자애를 지켜보는 것. 보는 이의 기대를 보란 듯이 저버리는 게 <지옥만세>가 앞을 향해 비틀거리며 나아가는 방식이다. 보는 이의 기대는 여러 번 깨인다. 그 첫 번째는 서울에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채린이 종로의 어느 종교 집단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복수 이야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신 종교집단의 수상한 교리와 신도들의 일상이 드러난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던 피해자와 가해자, 방관자 간 관계의 진실이 난데없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영화의 처음은 생일 축하를 빙자해 여러 명의 아이에게 둘러싸여 케이크 폭탄을 맞는 소녀에서 시작 하지만, 그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남희의 자살 기원 춤 장면으로 인해 미스터리는 더 이상 증폭되지 않는다. 케이크를 얼굴에 맞은 소녀가 남희일 거라 여기게 만들기 때문이다. 추동력을 잃은 듯 보이는 생일파티의 진실은 채린이 몸담은 종교집단과 그 부조리함의 여파로 아무도 그 사실을 궁금해하지 않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드러난다.

이제 세 소녀가 희붐하게 밝아오는 길 위에서 있다. 남희와 선우는 지옥 같은 세상을 뜨기 위해 천장에 목을 매달려 했고, 채린은 낙원으로 향하기 위해 절박하게 회개에 매달렸던 모습을 목격했다. 비틀대며 여기가 아닌 어딘가로 향하려는 소녀들은 이제 절대 죽지 말라는 말로 화해한다. 그리고 이들은 또 울먹이고 비틀대며 걸어갈 거다. 어디에도 매달리지 않고 발 뛰우지 않은 채로

지상 위에서.

유선아

2021년 부산영화평론가협회 평론 공모전 우수상 수상. 번역가로 일하며 영화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seona.yuu@gmail.com

## 침묵에 대한 선명한 교감

한창욱



<클로즈Close>(2023)

감독 루카스 돈트  
주연 에덴 담브린,  
구스타브드 와엘

루카스 돈트 감독의 <클로즈>는 친구가 떠나간 이후의 감정들에 초점을 맞추며 주인공 소년의 아름다운 얼굴처럼 맑은 기운으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린다. 알기 힘들었던 소년의 마음은 점차 우리에게 열리며 선명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인다. 하지만 이렇게 투명한 영화에도 불투명한 것들이 무척 많다. 무엇보다 불투명한 것은 소년의 성정체성이다.

<클로즈>는 이러한 불분명함을 중요한 요소로 만든다. 그런 탓에 레오가 겪는 상실 또한 그저 죽음이 아니라 ‘침묵’과 ‘빈자리’로서 감각된다. 있다가 사라진 존재, 말하지 않은 감정들. 그런 상황에서 레미의 엄마 소피(에밀리 드肯 분)와 레오가 그 빈자리를 공유한다. 그래서 <클로즈>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레오가 반복적으로 소피를 쳐다보는 모습이다. 두 사람 모두 말하지 못한 이야기에 잠겨 있는 듯이 서로를 쳐다본다. <클로즈>를 보며 우리가 느끼는 슬픔은, 그동안 말하지 않던 얼굴들이 서서히 제 감정을 드러낼 때, 우리가 그 감정 자체뿐만 아니라 말하기 힘들다는 그 감정마저 이해하면서 터져 나온다. 원예 농장에서 꽃이 흐드러지게 핀 모습은 불분명함으로 가득한 이 영화에 선연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영화 마지막, 그곳에서 레오가 다시 달린다. 그리고 잠시 멈춰있다가 뒤를 돌아본다. 마치 레오는 자신의 뒤에 달려오던 레미를 기억하는 듯하고, 이 영화는 레오의 그런 응시를 오랫동안 쳐다본다. 그렇게 레오는 이전보다 조금은 더 제 감정과 마주하는 듯한 얼굴을 우리에게 남긴다.

한창욱

부산영화평론가협회 회원. 서간문 형태의 비평지 비평의 편지를 운영한다. 비평쓰기와 영화토론 활성화를 위해 애쓰는 중이다. changwook.han22@gmail.com

# 각자도생(各自圖生) OTT 새로운 돌파구를 찾다

\* 제각기 살아 나갈  
방도를 꾀함.



<무빙>은 2023년 베스트 쇼야.” “왜 이게 넷플릭스 1위가 아닌 거야?” “넷플릭스에 없으니까. 이거 디즈니+야.” “아… 디즈니+ 감옥에 있구나.” <무빙>(2023)을 리뷰하던 해외 유튜버들의 반응은 넷플릭스를 추격하고 있는 디즈니+의 야심작 <무빙>이 가진 의미를 보여준다. 하나, 디즈니+는 <무빙>처럼 완성도 높은 퀄리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투자해 왔다. 둘, 아직은 넷플릭스의 독주를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다. 셋, 그럼에도 <무빙>은 화제가 되고 있다. <무빙>은 디즈니+가 오리지널 콘텐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던 시기에 제작에 들어갔던 작품이다. 긴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 기간을 거친 후 공교롭게 디즈니+가 콘텐츠 투자를 줄이겠다고 공표한 뒤에 시청자를 만나게 됐다. OTT 업계가 전반적으로 콘텐츠 투자보다는 요금제 개편으로 수익성 개선을 꾀하고 있는 시점, 오리지널 콘텐츠가 플랫폼에 미치는 힘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사례가 된 것이다.

디즈니+는 지속적인 구독자 이탈로 꾸준히 위기설에 직면했던 플랫폼이다. 지난해 4분기부터 꾸준히 구독자 수가 감소하며 1여 년간 총 1,800만여 명이 이탈했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디즈니+가 공식적으로 밝힌 가입자 수는 1억 4,610만 명이다. 지난해 12월 말 요금제를 7.99달러에서 10.99달러로 인상했다. 기존 7.99달러 요금제로 디즈니+를 보기 위해서는 광고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한다. 계속되는 수익성 악화로 결국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역시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신 북미 지역 구독자 4,830만 명인(2023년 3분기 기준) 훌루(Hulu)의 콘텐츠를 함께 볼 수 있는 통합 서비스 앱을 연말 출시할 예정이다.(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지금도 디즈니+에서 훌루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지만, 북미 지역은 아직 디즈니+와 훌루의 콘텐츠가 분리되어 있다.) 한국 드라마 역대 최고 제작비 650억 원이 투입된 <무빙>은 디즈니+가 한창 오리지널 시리즈 투자에 열 올릴 때 제작 확정된 작품이었다. 아직 <무빙> 시즌2 제작은 가시화되지 않았다.

엔데믹 이후 구독자 이탈과 성장을 둔화로 위기를 맞았던 넷플릭스는 광고형 요금제와 계정 공유 유료화 도입 이후 다시 성장세에 접어들었다. 2022년 상반기 넷플릭스 가입자는 117만 명 감소했지만, 광고형 요금제가 도입된 2022년 4분기에는 766만 명 증가하며 넷플릭스의 수익률을 개선



시켰다. 가입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추가적인 구독자 이탈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불식하며 OTT 플랫폼의 새로운 생존 전략을 발견한 것이다. 이에 후속 주자들도 넷플릭스의 사업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디즈니+는 오는 11월 최대 4K 울트라 HD 및 HDR 화질, 돌비 애트모스 오디오를 제공하는 기존 멤버십 요금은 월 9,900원에서 1만 3,900원으로 인상하고, 대신 풀HD 화질과 5.1 오디오 채널을 제공하며 동시 스트리밍 기기 수를 2대로 제한하는 스탠다드 멤버십을 월 9,900원에 제공하는 요금제 개편을 알렸

다. <무빙> 공개 이후 8월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가 48% 증가하고 8월 넷째 주 주간 사용 시간이 콘텐츠 공개 이전 대비 130% 늘어나는 등 디즈니+는 오리지널 콘텐츠 흥행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었다. 이 기세를 몰아 디즈니+는 미국 시장 구독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며 시험했던 요금제 개편안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넷플릭스처럼 저렴한 광고요금제를 선택지로 제공하기보다는 구독료 자체를 높이는 전략이다. 또한 계정 공유를 막기 위한 추가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밥 아이거 월트 디즈니 컴퍼니 최고경영자는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현장에서 “계정 공유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말쯤 암호 공유를 막기 위한 대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업계 1위는 넷플릭스다. 하지만 넷플릭스마저 구독자 이탈에 대처할 새로운 전략을 강구해야만 했고, 후속 주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여기에 변수는 최근 할리우드에 닥친 미국 작가·배우 파업이다. 미국 방송사에서 편성할 드라마와 쇼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특히 훌루 등의 플랫폼은 직격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OTT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시아, 인도 시장 등에서 적극적으로 현지 콘텐츠를 육성했던 넷플릭스는 상대적으로 파업의 여파에서 벗어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디즈니+는 시의적절하게 <무빙>을 공개했다. 현재 디즈니+의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훌루는 TV 콘텐츠 중심의 플랫폼으로 미국 작가·배우 파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무빙>은 코로나19 때도 셧다운 없이 촬영 현장을 가동했던 한국에서 제작된 콘텐츠다. 넷플릭스가 팬데믹 위기를 <스위트홈>(2020), <오징어게임>(2021)의 흥행으로 이겨낸 것처럼, 디즈니+에게 <무빙>이 같은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디즈니+가 <무빙>의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것이 콘텐츠 투자라는 초심으로 돌아갈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임수연

<씨네21> 기자. 물리학과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어쩌다 보니 영화 전문 기자가 됐다. 기자는 다방면에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지식을 잘 흡수해야 한다고 믿는다. 영화를 포함한 영상 산업 전반과 관객성에 관심이 많다. @im.sy.mi



##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나는 부산촬영 영화

● 전체관람가 ● 12세 미만 관람불가 ● 15세 미만 관람불가 ● 청소년 관람불가 ● GV 게스트와의 만남  
 ● 한글자막+영어자막/대사 ● FN 한글자막+비영어대사 ● KK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자막상영 ● OA 대사없음 ● 무표시: 영어자막 + 한국어대사

### 한국영화의 오늘 - 스페셜프리미어

특별한 대중적 매력과 위상을 지닌 동시대 한국 주류 상업 영화의 최신작 및 대표작을 프리미어로 상영하는 섹션



#### <독전 2>

국가 Korea | 제작연도 2023 | 러닝타임 115min  
감독 백감독 | 출연 조진웅, 차승원, 한효주, 오승훈

**부산촬영 기간** 2022. 09. 23. ~ 2022. 09. 25.

030   10-05   19:30	● 18 ● GV
068   10-06   16:00	● 18 ● GV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391   10-10   17:00	● 18
CGV 센텀시티 1관	



#### <발레리나>

국가 Korea | 제작연도 2023 | 러닝타임 93min  
감독 이충현 | 출연 전종서, 김지훈, 박유림

**부산촬영 기간** 2022. 09. 27. ~ 2022. 10. 02.

023   10-05   12:30	● 18 ● GV
CGV 센텀시티 스타리움관	
092   10-06   17:00	● 18 ● GV
CGV 센텀시티 4관	
453   10-11   17:30	● 18
CGV 센텀시티 1관	

### 한국영화의 오늘 - 파노라마

동시대 한국영화의 역량과 흐름을 만끽할 수 있는 그해의 다양한 대표작 및 최신작을 선보이는 섹션



#### <보호자>

국가 Korea | 제작연도 2022 | 러닝타임 97min  
감독 정우성 | 출연 정우성, 김남길, 박성웅, 김준한, 박유나

**부산촬영 기간** 2020. 03. 23. ~ 2020. 04. 13.

040   10-05   13:00	● 18 ● GV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4관	
085   10-06   13:00	● 18 ● GV
CGV 센텀시티 6관	
388   10-10   16:30	● 18
CGV 센텀시티 5관	



#### <비공식작전>

국가 Korea | 제작연도 2023 | 러닝타임 132min  
감독 김성훈 | 출연 하정우, 주지훈

**부산촬영 기간** 2022. 08. 16.

037   10-05   13:00	● 18 ● GV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7관	
124   10-06   19:30	● 18 ● GV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3관	
316   10-09   14:00	● 18 ● KK
CGV 센텀시티 7관	



#### <소울메이트>

국가 Korea | 제작연도 2020 | 러닝타임 124min  
감독 민용근 | 출연 김다미, 전소니, 변우석

**부산촬영 기간** 2020. 11. 02.

031   10-05   19:00	● 18 ● GV
CGV 센텀시티 5관	
082   10-06   12:30	● 18 ● GV
CGV 센텀시티 3관	
379   10-10   13:30	● 18 ● KK
CGV 센텀시티 7관	



#### <소풍>

국가 Korea | 제작연도 2023 | 러닝타임 120min  
감독 김용균 | 출연 나문희, 김영옥, 박근형

**부산촬영 기간** 2023. 05. 08. ~ 2023. 05. 20.

041   10-05   12:00	● G ● GV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3관	
165   10-06   16:00	● G ● GV
CGV 센텀시티 5관	
546   10-12   20:30	● G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3관	

### 한국영화의 오늘 - 비전

뛰어난 작품성과 독창적 비전을 지닌 한국독립영화 최신작을 선보이는 섹션



#### <해야 할 일>

\*부산영상위원회 2022년 부산제작사 장편극영화 제작지원 선정작

국가 Korea | 제작연도 2023 | 러닝타임 103min  
감독 박홍준 | 출연 장성범, 서석규, 김도영, 김영웅, 장리우, 이노아, 강주상, 김남희

**부산촬영 기간** 2022. 11. 17. ~ 2022. 12. 04.

229   10-08   13:00	● 18 ● GV
CGV 센텀시티 4관	
296   10-09   17:00	● 18 ● GV
영화의전당 소극장	
447   10-11   16:00	● 18 ● GV
CGV 센텀시티 5관	
537   10-12   17:30	● 18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3관	

### 온스크린

영화의 확장된 흐름과 가치를 포괄하는, 그 해 최신의 드라마 시리즈 화제작을 상영하는 부문



#### 티빙 <러닝메이트>

국가 Korea | 제작연도 2023 | 러닝타임 120min  
감독 한진원 | 출연 윤현수, 이정식, 최우성, 홍화연, 이봉준, 김지우

**부산촬영 기간** 2023. 04. 08. ~ 2023. 08. 23.

094   10-06   19:30	● 18 ● GV
CGV 센텀시티 5관	
194   10-07   16:30	● 18 ● GV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3관	
278   10-08   20:00	● 18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8관	



#### 디즈니+ <비질란테>

국가 Korea | 제작연도 2023 | 러닝타임 130min  
감독 최정열 | 출연 남주혁, 유지태, 이준혁, 김소진

**부산촬영 기간** 2023. 01. 09. ~ 2023. 01. 10.

016   10-05   11:30	● 18 ● GV
CGV 센텀시티 6관	
132   10-07   12:00	● 18 ● GV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320   10-09   16:30	● 18
CGV 센텀시티 1관	

### 특별기획 프로그램 II -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전: 코리안 디아스포라

주목할 만한 영화인이나 영화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섹션



#### <버닝>

국가 Korea | 제작연도 2018 | 러닝타임 148min  
감독 이창동 | 출연 유아인, 스티븐 연, 전종서

**부산촬영 기간** 2017. 12. 21. ~ 2017. 12. 23.

059   10-06   09:00	● 18 ● GV
영화의전당 종극장	
441   10-11   13:30	● 18
CGV 센텀시티 1관	

# BFC NEWS



## 가을의 부산, 콘텐츠 축제의 장이 열린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부산이 어김없이 분주하다.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 기간에 맞춰 부산을 찾는 수많은 영화·영상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부산영상위원회 역시 부산 영상산업과 세계를 잇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먼저, 국내외 영상위원회 네트워크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전국 영상위원회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한국영상위원회 간담회가 6일 영상산업센터 컨퍼런스 훈에서 개최된다. 세계를 주도하는 K-콘텐츠 제작을 위한 촬영 지원 및 로케이션 지원 등과 같은 실무적 논의를 이어가는 자리다. 7일부터 10일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에는 아시아영상위원회네트워크(AFCNet) 공동부스(#C22)가 차려진다. 부산영상위원회가 의장을 맡고 있고, 전체 20개국 55개 회원이 속한 AFCNet은 7일 '아시아, 부산을 만나다'라는 타이틀의 A+B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감독과 부산 지역 제작사의 매칭을 시도한다.

영상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기술 교류와 IP 발굴, 아시아 영화 발전을 위한 네트워킹도 활발히 이어진다. AFCNet과 마찬가지로 마켓에서 부

## 2023 연내 개봉 및 방영 예정

**<소통>**  
감독 김용균  
출연 나문희, 김영옥, 박근형

**<용감한 시민>**  
감독 박진표  
출연 신혜선, 이준영

**<화사한 그녀>**  
감독 이승준  
출연 엄정화, 송새벽, 방민아, 박호산, 손병호, 김재화

**JTBC <힘쎈여자 강남순>**  
연출 김정식, 이경식  
출연 이유미, 김정은, 김해숙, 옹성우, 변우석, 영탁, 이중우, 주우재

**넷플릭스 <독전2>**  
감독 백감독  
출연 조진웅, 차승원, 한효주, 오승훈, 김동영, 이주영

**넷플릭스 <발레리나>**  
감독 이충현  
출연 전종서, 김지훈, 박유림

**디즈니+ <비질란테>**  
연출 최장열  
출연 남주혁, 유지태, 이준혁, 김소진

**티빙 <러닝메이트>**  
연출 한진원  
출연 윤헌수, 이정식, 최우성, 홍화연, 이봉준, 김지우, 육진욱, 윤도건

**넷플릭스 <경성크리처>**  
연출 정동윤  
출연 박서준, 한소희, 수현, 김해숙, 조한철, 위하준

**넷플릭스 <이두나!>**  
연출 이정효, 장유하  
출연 배수지, 양세종

**넷플릭스 <스위트홈 시즌2>**  
연출 이은복, 박소현  
출연 송강, 이진욱, 이시영, 고민시, 박규영, 유오성, 오정세, 김무열, 진영

\* 공개 일정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 영화정보와 네이버 드라마 정보를 참고했으며, 일정과 작품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산영상위원회 앱으로도(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영화부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박형준 부산시장  
**편집인** 강성규  
**편집책임** 배주형  
**편집팀** 박다슬, 성소연, 김아현  
**TEL.** 051-7200-387  
**사진** 공정현  
**발행처** (사)부산영상위원회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8층 TEL.051-7200-301  
FAX. 051-7200-300  
**표지** <무빙>(2023) 제작현장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제공)  
**디자인·제작** 김민정 · 디자인대훈  
TEL. 051-898-0330

※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 <영화부산>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동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번호 '해운대 바00006'으로 신고된 정보간행물입니다.

※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옮겨 싣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려면 부산영상위원회와 저작권자의 서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해당되지 않음)

※ 이 책은 <영화부산> 웹마거진([www.filmbusan.kr](http://www.filmbusan.kr))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태블릿 PC 및 휴대전화에서 부산영상위원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이 책에 실린 글은 부산영상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발행되었습니다.



<영화부산>은 ASA(미국대두협회)가 인증한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이용해 인쇄합니다.